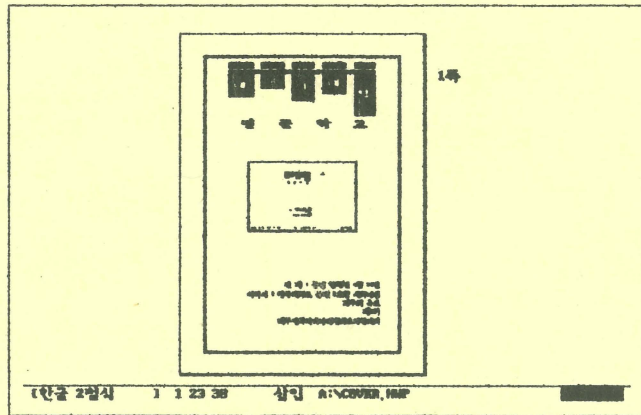


대 경 여 대 협

일 끈 학 교



언 제 : 통일 한해전 4월 23일
 어디서 : 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세미나실
 자주 의 육 토
 제 5 기
 대구 경북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일꾼학교는 이렇게 진행되지요

알찬 비디오 하나 12 : 00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각 대학교 여학생회 일꾼들 으니사 13 : 00

알찬 얘기 하나 14 : 00
 - 94년 경매와

본임부의 이해(사) 김갑진 15 : 00

남제 16 : 00
 대경어대협이

대경어대협 17 : 00

꼭 알아야 할 얘기들 18 : 00
 우리 일생의 갈부들은 이렇게

양대리학교 개교 이렇게 표정입니다 18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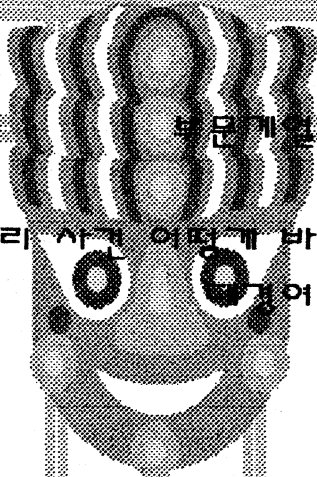
의장님 오십시오 19 : 00

대동 풀이 한마당 19 : 00



순서

1	일꾼학교는 이렇게 진행되지요
3	대경어대협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7	94년 정세 속에서 여학생운동의 방향
11	대경어대협이란
15	대경어대협 총노선
28	각 대학 총노선
51	부문계열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56	간부론
61	양애리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투쟁할 것인가
65	대경어대협 해오름식 기획안
66	성폭력에 대하여
74	어학우와 조국통일
88	택아사업에 대하여
93	어언운영을 위하여
98	여성문제의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
114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대구여성회)
117	대경지역 여성단체 소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 ▣ 여학생 운동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간부
- ▣ 어디서나 여학생 운동의 자긍심으로 당당하게 여학우를 만나는 간부
- ▣ 끊임없는 생활 혁신으로 여학우를 철저히 책임지는 간부
- ▣ 동지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비판을 늦추지 않는 간부
- ▣ 조국의 운명을 고민하고 정세에 둔감하지 않는 간부
- ▣ 애국하는 조직의 규율과 체계를 지키고 조직을 올곧게 세울 줄 아는 간부

이런 소중한 대경 여대형 간부 한사람 한사람을 만들어 가고 책임져 가는 것 출발을 일꾼 학교로부터 시작합니다. 4만 자주 여성을 책임지는 우리 간부들로부터 이제껏의 자신의 생활을 철저히 되돌아 보고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며 이제 대경 여대형이 나의 조직으로, 4만 자주 여성의 조직으로 우뚝 세워 봅시다.

여학생 운동의 본 궤도 전개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94년 힘차게 열어젖히는 풍부한 결의찬 소중한 만남의 일꾼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리하고 한반도 여성의 삶을 짓누르는 미국, 김 영삼 정권에게 94년 자주 여성의 자부심으로 여학생 운동의 본대를 보여 줍시다.

사랑합니다! 동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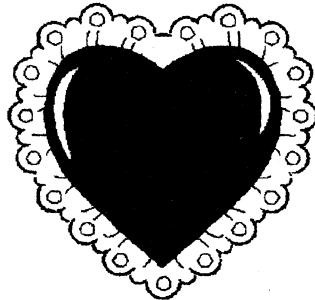
애국하는 조직. 4만 자주 여성의 희망새
자주의옥토

제5기

대경여대형 의장

경복대 총여학생회 회장

이상문



살면서 느끼는 문제는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고 또한 나와 내 주위의 것들에 대해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그속에 살아가는 개개인은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여성으로서의 굴레를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채 남성 위주의 사회속에서 그대로 사회의 분위기나 사회의 통념에 무의식적으로 추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자주 여성이라는 기치아래 주체성을 상실한 무기력한 삶을 거부하고 학내에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지리 매김을 위해 여성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저희 상주 산업 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아직 3대라는 어린 나이로 앞으로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지만 대경 여대협의 발전 속에서 더욱 강화되어지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상주 산업 대학교

통큰 사랑. 자주 여성

제3대 일어서는 총여학생회 회장 심 미 정

----- '여학생 운동에 대한 자긍심'으로 칠천의 삶 속에서의 자주성 고양을 통해 민족 복원 당당한 자주 여성의 삶을 실현한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 개인의 장래, 연애 문제, 집안 문제만이 고민의 중심이 되고 이 땅 한반도 여성의 억압받는 삶에 대해서는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가슴과 마음으로 고민하고 아파하지 못하는 간부들을 종종 봅니다.

여학생 운동은 단순히 봉사 차원의 소부르조아적 운동도 아니요, 여학우의 생활적 이해와 요구만을 실현하는 대행 사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여성의 자주성 실현을 위해 식민지 조국의 여성이 처한 조건과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의식화 하고 실천 조직화하는 여성 자주화 운동인 것 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상을 틀어 쥐고서 여학생 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이를 대경 여대협을 중심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민족 경북대 제9대 자주 총여학생회

부회장 한 은 정

올해따라 유난히 번덕이 심한 봄날씨가 꼭 민자당과 김 영삼의 행패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경 여대협 일꾼 여러분.

각 단위에서 인간 해방의 발걸음을 당차게 내딛는 대경 여대협의 단위 일꾼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힘이 솟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과 분노로 다가오는 5월을 새롭게 준비하며 이곳 솔피골의 학우들은 쌀투쟁을 힘차게 풀어냈던 그 의지를 가다듬도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을 당당한 삶의 주체로 세워내는 그 길에 힘차게 전진하며 더욱더 대경 여대협으로의 통일 단결을 이루워 냅시다.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투쟁의 5월이 눈 앞에 펼쳐 집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안동 대학교

홀씨를 나눠주는 민들레의 사랑으로

제10대 자주 총여학생회 회장 권 정 민

안녕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의 문제를 안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성희롱 승소 판결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문제를 화제 삼는 여러사람들을 보면서 나머지 다른 많은 문제들도 내리는 봄비처럼 축축하게 언젠가는 우리의 가슴을 적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남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몇개월 안되는 활동속에서 느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구교대 여학생 위원회 위원장 박 소 영

안녕하세요? 4만여학우 여러분.

문득 작년 이즘의 제4기 간부학교가 생각납니다.

이제 한살을 더먹어 5기를 맞은 대경여대협.

가끔 너무 더딘 우리들의 행보에 지치기도 하지만 언제나 여학생회 발전의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뜨거운 열정으로 올한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영대 여학생회 일꾼들은 모두 화이팅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차게 화이팅!!

영남대 총여학생회장 강 경 숙

온통 피어난 민들레를 보면서 문득 여성일꾼 여러분들이 민들레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곳이나 피어나고 뽀내 자랑치도 않는 그 모습이...

대구 경북지역 여성일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남은주입니다.

조국은 청년에게 투쟁을 요구하고 있고 자랑찬 백만 청춘은 투쟁으로 화답하는 시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억압받고 착취받았던 여성들은 이제 침묵에서 외침으로 혼자에서 함께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대 6천 여학우도 올해는 기필코 회칙개정을 이뤘내고 대경여대협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해방, 인간해방 그날을 대구대에서 부터 열어제끼겠습니다. 이제 5기를 맞이하는 대경여대협을 여학우들의 삶에 기반한 대중조직으로 세워내고 투쟁국면을 우리 여성운동 또한 투쟁국면으로 열어가는 것은 우리 여성일꾼들이지요. 여러분과 함께 만날수 있어 가슴 벅칩니다.

이제 잔인한 4월도 끝나가니 단위마다 여러 문제들이 나설때입니다. 항일무투대의 당당한 여성전사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곁에 동지들의 두 손뼉 잡고 달려갑시다. 우리 해방의 그날까지.

제10대 자주여성 민주남성이 함께 일귀가는
대구대 여학생위원회위원장 남 은 주

●●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할 일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나 하나 찾아서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 가리켜 우리는
자주여성 이라 부르리

●●
참되게 사는 사람에겐 어제의 삶은 오늘에 되풀이되지 않는 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되게 사는 길을 찾으며 당차게 살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여학우들이 있기에 조국의 내일은 엄청 밝을 듯 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라는 공동체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며 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경산대의 여학우들과, 또한 4만 대구 경북지역의 여학우들과 항상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학우의 삶에 뿌리내리는 대경여대협으로 굳건히 세워가며 어머니 조국을 이을 버팀목이 될 것을 결의합니다.

경산대 총여학생회장 장은희

1) 인간-사상 (생물학) 2) 여성-자본 (여성노동) 3) 자본 (자본가) 4) 자본 (자본가) 5) 자본 (자본가) 6) 자본 (자본가) 7) 자본 (자본가) 8) 자본 (자본가) 9) 자본 (자본가) 10) 자본 (자본가)

94년 정세속에서의 여학생운동의 방향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여학운은 지난시기 정세에 기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여학운 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당면해서 반미, 반김 의식의 확산과 질적 발전을 가져올 쌀투쟁과 아울러 전쟁책동분쇄투쟁, 통일운동을 상승발전시키는 투쟁의 정세속에서 우리 여학운에 부여된 여성자주화 관점에 입각한 우리의 내용으로 조직공간을 탄탄히 세원내고 이를 통한 기본운동역량강화라는 부문운동으로의 제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이 부족한채 우리의 임무를 방기하고 수입개방 저지투쟁에만 목숨을 거는 편향을 일정정도 노정했으며 이로인해 깊은 고민속에 대중사업을 조직사업으로 연결시켜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행사 위주의 사업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정세에 둔감해 학자다, 쌀투쟁이다, 질질 끌려가기식 물대주기를 하기도 하고 신문에 연일 터지는 성희롱 사건, 유급생리휴가 폐지, 양애리사건등 부문운동으로서 명확한 부문운동의 관점으로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학우들 의식화 작업에도 소홀했었다. 보다 광범위하고 심화된 학우의 의식변화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간부들 먼저 정세변화를 바로보고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찾아 투쟁을 힘차게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미국과 김영삼 정권은 남한 민중의 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매국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쌀정국을 조속히 마무리 하려 할 것이다. 국회비준은 늦어도 6월까지, 오래 끌면 끝수록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때문이다.

수입개방을 통해서 잃게되고 구조적 경제 모순속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물가인상과 임금억제의 논리가 정책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민중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높아만가고 있다. 임금억제 논리를 실현시키기위한 노-경총의 임금합의와 사상공세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며 민중의 고통로 미국과 매판자본가를 살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3) 자립하는 여성 (경제. 사회 독립) 4) 자립하는 여성 (경제. 사회 독립) 5) 자립하는 여성 (경제. 사회 독립) 6) 자립하는 여성 (경제. 사회 독립) 7) 자립하는 여성 (경제. 사회 독립) 8) 자립하는 여성 (경제. 사회 독립) 9) 자립하는 여성 (경제. 사회 독립) 10) 자립하는 여성 (경제. 사회 독립)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책동을 통한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하고 북한을 고립 압살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우리 민족을 핵전쟁에 불모로 삼고 미국의 신태평양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정치적으로 핵대국의 채찍으로 제3세계 나라들을 비핵의 족쇄로 묶어놓고 순종하는 노예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미국은 합의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문제까지 들고나와 일방적으로 3단계 조미회담을 파기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문제와 남한 특사교환 문제를 구실로 T.S훈련을 감행하며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하려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남침위험을 떠들며 192기의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등 군사장비의 보강 칼빈슨호를 비롯한 미군함대의 한반도 집결을 강행하며 한반도의 긴장격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해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민의 가면을 쓴 김영삼정권이다.

이북을 고립 압살하고 미국의 돌격대로 나서서 남북관계를 통일시켜 대결국면으로 이끌어 간것도 김영삼정권이었으며 한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미 회담에 제동을 걸어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간것도 김영삼정권이다. 국제 공조체제 수립을 위해 민족의 자주권을 외세에 팔아먹은 것도 김영삼이다. 더이상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자 인위적으로 남북관계를 전쟁국면,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이다. 아울러 5,6공 청산이 기만적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5월 문제해결은 영삼이에게 부담이 될것이며 쌀 투쟁에서 분출되는 국민들의 폭발적 투쟁은 5월 정국에서 뜨거운 기운으로 부각될 것이다.

간략하게 지금의 정세를 짚어 보았다.

여학운은 자민통의 과제와 여성운동의 선봉대의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다보니 이중의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당면한 정치적 사안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자기말로 만들어 여학우의 정서에 맞게 다가갈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고 일차적으로 여학우대중의 처지와 자주성 실현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여 여학생운동의 조직화 여성운동의 역량강화에 복무해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수위높은 먼저된 고민, 그리고 결사의 각오가 필요하다.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된 속에서는 한반도 여성해방은 물건너가듯이 당면 정세속에서 놓여지는 투쟁은 바로 나의 투쟁이라는 것을 명확히하고

먼저 토론속에서 정세를 간파하고 투쟁을 주어진 의식으로 준비하고 참여하고 또 이속에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단련시켜야 할것이다. 현정세와 관련해 쌀투쟁을 여학단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내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

쌀투쟁과 관련해서 여학운은 여연연구단위나 정책 학술을 중심으로 '수입개방이 되었을때 여성농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식민지 여성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와 같이 여학단위내용을 결합할수 있는 부문을 정리해들어가면서 학내 여학우들을 만나고 여학단위 소모임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토론을 하게하고 수입개방 반대의 의지를 모아내자.

그리고 대중강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여성농민회분을 초청해 여성농민의 삶과 수입개방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

그리고 대동제때 여농회와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맛자랑 멋자랑' 등을 벌여도 좋을 것이다.

수입개방 반대의 플랭카드를 하나 쓰더라도 여학우의 의지와 정서를 포괄할 수 있는 선전을 고민하자.

예를 들면

"7천의 당당한 자주여성의 자존심, 수입개방 못막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

"수입개방 강요하고 한반도 딸 유린하는 미국을 반대한다."

"우리의 어머니 여성농민에 대한 사랑으로 7천자주여성 재협상의지 없는 김영삼과 전변전을 선포한다." 등등...

또한 수입개방반대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의 투쟁하는 사진을 전시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고민하고 우리의 내용으로 힘있게 풀어낼때 쌀투쟁을 단순히 실무 하중으로 느끼지 않고 학생회와의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을 얘기 할수 있을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우리의 임무이다. 우리는 여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쌀투쟁을 잘 풀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임무를 방기하고는 여학간부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다했다 할수없다.

신문에 연일 터지는 여성문제와 여성계 정세를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장악하자. 성희롱사건, 유급생리휴가, 그리고 양애리 사건...

발빠르게 대응하고 힘있게 투쟁하자.

양애리 투쟁을 중심으로 성폭력 투쟁을 벌여내고 정세에 부합한 1년을 관통하는 기초있는 사업을 벌여내자.

그리고 빨리 핵심 간부를 발로 단련시켜 고민의 수위를 높여내고 지켜 있을지도 모를 간부들을 재정비 재무장시켜내자.

일상사업을 충실히 벌여내면서 새내기 조직화작업과 골간단의를 하나한 점검하면서 기층조직 건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우리내용을 틀어쥐고 골간 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우리 내용을 틀어쥐고 골간 주체역량 강화라는 지금의 우리의 임무를 잊지말자.

이제 여학생운동 또한 본궤도에 진입할때이다. 여학생운동의 내용으로 힘있게 풀어낼때 쌀투쟁은 단순히 실무하중으로 느끼지 않고 학생회와의 미묘한 관계에서도 당당하게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을 얘기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학우를 중심으로한 여학생운동과 골간 하부토대를 하나하나 건설, 내용있게장악해 들어가면서 이것이 중앙 대경여대협으로 모아지고 여성자주화 관점으로의 사상통일을 기본으로 한 한반도 여성에게 만약의 근원 미국과 김영삼에 대한 우리 내용으로의 힘있는 투쟁으로 여성자주화 그길, 여학생운동의 본궤도 진입을 선포한다.

- | | | |
|--------------|----------------------------------|----------------------------|
| 공부 (평생적) | 본인 (근대적?) | · 출학-동어 관계
· 후일 형성 것이나? |
| 1. 물리적 여가 통치 | → 인문 | · 남성의 변화 - 여성에게 당면하다. |
| 2. 통치이념: 02년 | → 인문지리 | · 의공적 예측 - 식육적, 자각적 재평가! |
| 3. 통령, 공동 | → 세뇌, 회유 - 지식인들 본래 출대
유구 / 개혁 | |

94 → 광화리지 양은 것

대중 운동

1. 본인이 이론 (논리)가 허수아미 명백
추구와 개혁의 대립 X → 기독교 ↔ 인문 4의 대립.
(농민, 노동자, 학생과 ...)
 2. 예측과 ↔ 자주적 자율, 민족이론 현실
(농민) (동학)
- 여학생 운동의 의의와 조직화
· 주체의 문제.
· 성령 바뀐 내외
· 고발
· 타도 - 불교
· 회진 - 농민
· 4대 - 운동권 상층, 민주당

94 여학생 운동

이론적 근거: 상충적 계층 X, 계층적 방법, 여성 문제 다양
주변 > 영향: 하나, 의미 부여, 현재 → 자주 (민중의 계층) + 각성과 함께
다중적 논쟁, "개혁", 소비, 노골 (근대적) 계층 > 뛰어넘음, 통일.

1. 한국사회 주명

· 학생, 국가정책 대응의
(외교, 국방, 주권 X)

여학생 - 학생, 계층, 역사상, 의정권 시기 X.

계층적 사고 X
"공공도식" 사고
"자주적" 양은 것은 관용 필요함
"주체적" 여성
"인문" 계층
"리론" X

자주적, 개인적인 고민 X, 보편적 사고 X.

· "권력적 세력" "취업과 사투리" "권력적 세력" "취업과 사투리" "권력적 세력" ...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들어가며

94년 대경여대협은 5기를 맞이한다.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여학우의 연대조직으로서 기간 여학우의 생활 속의 문제인 성폭력추방운동, 민족의 절실한 과제인 조국통일 운동등 하나하나의 투쟁속에서 모범과 성과를 쌓아왔다.

그러나 지금 여대협의 수준은? 여학생회 일꾼 조차도 여대협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에서 짐작할수 있듯이 4만 여학우의 조직으로 굳건히 서 있지는 못하다. 여대협이 진정 나의 조직, 4만 여학우의 조직으로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여학생회 일꾼들의 나부터 여대협을 세워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대협이란 도대체 뭘까?

1. 여학우의 애정이 깃든 여대협의 역사

87년은 전국적으로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분출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자기조직, 자기운동의 전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때이다. 여성운동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결성으로 그간 분산적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시기 여학생운동 역시 미약하게나마 자기의 내용을 준비하며 대중운동으로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다. 6월 항쟁을 통해 서울지역 각 대학 여학생대표들이 미약한 여학생회 활동을 극복하고 올바른 여학생운동을 펼쳐 나가하고자 하는 모임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서여대협'이 건설된다.

실천적 경험의 부족함으로 조직의 내용이 부족했지만 끊임없는 주체들의 노력으로 '툼보이 불매운동', 88올림픽을 맞아 'AIDS퇴치운동'의 전개등 반미자주화의 관점속에서 여성운동을 벌여나가는 모범을 세우게 된다.

'AIDS퇴치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88년 대구지역에서도 총여학생회장단들이 모여서 일단은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대구여성회와 연대하여 최초의 연대사업을 시도하게된다. 그러나 이시기에는 주체의 각오정도와 여학생운동에 대한 해명의 부족으로 일시적 연대에 그쳤다.

이후 88년 12월에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대협 하루 찾집'의 준비를 위해 89년 신입회장들의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전망을 내오고 정식적인 회의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범과 정보의 전파를 위한 논의를 주로 진행했지만, 점차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속에서 구체적 이론과 실천의 지도내용을 논의하게 되었다. 89년에는 찾집과 평양축전투쟁의 참가, 여대생 대동 캠프등의 연대사업을 진행했고 이로써 전국적 연대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청년학생운동속에서 자기역할에 대한 구체적 실천적 경험의 해가 되었다.

90년에 이르러 정식발족을 맞이했다. 90년 이후 전국적 연대조직으로서 대경여대협은 여대생 통일선봉대구성, 보은진관이 이후 즐기치게 이어온 성특법제정과 성폭력척결투쟁, 주한미군이야 말로 성폭력의 근원임을 또 한번 각인하고 벌여온 주한미군철수투쟁등을 모범적으로 풀어가며 자랑스런 여대협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2. 백지장도 맞들면 낡다잖아요.

여학생회는 여학우의 자주성을 최대한 발현해내는 여학우의 대중자치 조직이며 학생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강화를 이루어 내고 여성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여성운동을 드높이 고양시켜나가며 나아가 구국운동에 복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이루어냄에 있어 고립됨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을수 있다. 자기단위에만 머물러 있을때 정보의 협소함에서부터 자기만족적인 사업태도와 전망부족, 실천에 있어서 힘의 분산등 운동의 걸림돌을 낳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여대협의 성과가 보여주듯 여학생운동, 여성운동은 전국적인 연대로 일어설때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며 그렇게 이루어진 여학생운동의 발전은 각 지역의, 각 대학의 여학생회의 발전을 가져오고 개개 여학우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첫째, 연대를 통해 모범과 경험의 축적을 이루어낸다.

여학생회의 수준에 있어 편차가 심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특히 연대를 통한 모범전파와 경험의 공유가 중요하다. 해마다 각 대학은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나누고 극복해감으로써 대구경북지역 전체 여학생운동의 내용이 그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 갈것이다.

둘째, 연대속에서 일꾼은 더욱 튼튼해진다.

여대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학우 대중이다. 특히 여학우대중의 중심으로 서야할 여학생회 일꾼들은 서로가 지친 어깨를 두드려주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우리가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 동지의 소중한

순간마다 깊이를 더해가는 값진 재산이듯 여학생회 일꾼들에게 있어 함께 여성자주화의 그날을 온몸으로 일구는 여학생회 일꾼이라면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을 가릴 것없이 투쟁의 소중한 선물이 된다.

세째,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어낸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상적 분열은 곧 힘의 분산이다. 여학생운동의 장기적인 전망을 내요고 그속에서 매시기마다 우리의 내용과 운동의 방향을 밝혀내는데에 있어 통일된 관점을 이룰때 여학우대중의 믿음직한 구심으로 서며 실천해나감에 있어 집중된 힘을 발휘해갈 것이다.

네째, 실천에 있어 단결이상의 막강한 힘은 없다.

분열은 억압하는 자의 존재방식이고 민중의 존재방식은 단결이라고 한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는 여성의 억압을 깨뜨리는 데에있어 단결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 혼자 소리보다는 여럿의 소리가 크고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운동으로서 여학우 대중의 믿음은 굳건해 진다. 이로서 여학생운동은 그 지위와 역할이 드높아지며 큰 힘을 형성할때 여성의 자주화를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도 약해지고 마침내는 꼬리를 감추고 말것이다.

다섯째, 또한 연대를 통해 전체 학생운동과 구국운동에서 제자리를 찾고 전체 운동의 강화를 이루어 낼수 있는 것이다.

3. 대경여대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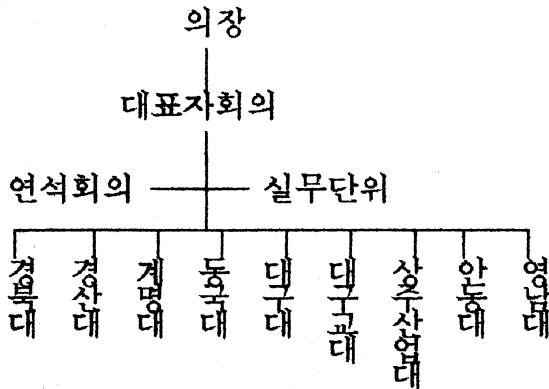
이땅의 여성운동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속에서 우리는 눈부신 활약을 했던 이땅의 어머니들을 볼수 있었다. 모진 탄압으로 여성운동의 명맥이 단절될 위기도 맞았으나 여성들의 자주적 삶에 대한 지향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대경여대협은 역사속에서의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며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 성적차별과 사대매국정권으로 인한 계급적 억압, 제국주의로 인한 민족적 고통을 헤치고 여학우들의 연대의 힘을 통해 여성 자주화와 조국의 해방을 실현해가고자 하는 조직이다.

❖ 여대협의 조직적 위상을 정리해보면,

- 1)대구경북지역 각 학교 여학생대표들로 이루어지며, 상호간의 공동관심사안을 논의하고 공동사업에 함께 대처해나가기 위한 대중조직이다.
- 2)대경총련 산하 여학생부문운동조직으로서 총련사업에 복무함과 동시에 일정한 독자성을 갖는다.
- 3)전여대협의사수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총련 강화에 복무한다.
- 4)지역여성운동과 연대하여여성 운동에 복무한다.

▲ 현재 대경여대협의 조직체계는 이러하다.



▲ 여대협 강화는 주체의 결의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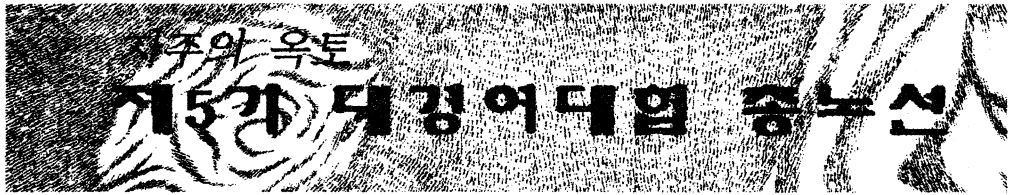
여대협이 총여학생회장들끼리의, 여학생위원장만의 것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경여대협은 어느 다른 이들의조직이 아닌 바로 여학생회 일꾼우리들의 조직, 4만 여학우의 조직이어야 한다. 각 대학여학생운동의 발전은 곧 대경여대협의 강화이며 여대협이 4만의조직으로 흔들림없이 서 나갈때 여학우의 믿음속에서 각 대학 여학생회의 발전 역시 앞당겨 질것이며 또한 여학우의 삶에서 드높이 자주성이 실현될 것이다.

아직은 미약한 협의회의 수준이지만 '총여학생회 연합'으로 여학우의 삶속에 튼튼히 설날이 떨지만은 않다.

여학생운동의 발전은 바로 이자리에 있는 여학생회 일꾼들의 결의로부터 시작됨으로.

어느 누구도 아닌 여학생운동의 주체인 우리들로부터.

전여대협의 강화, 대경여대협의 모범으로 이루어냅시다.!



기층조직력 건설 강화는 여대협 중앙
단위의 조직력 강화로, 여학생운동의
대증화를 실현한다.

1. 들어가며
2. 여대생의 존재 규명
3. 여학생 운동이란...
4. 여학생 운동의 한계와 오류
5. 사상운동의 측면
6. 조직운동의 측면
7. 대중운동의 측면
8. 연대사업 및 시기별 사업

1. 들어가며

투쟁국면이다. 93년의 김영삼의 변화와 개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폭로되어가고 있는 상황과 미국의 강도적인 경제 침략인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무능력과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한 사대 매국성, 특히나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쌀수입 반대의 약속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내팽겨 치는 모습에서 그리고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의해 민족의 생존이 걸린 핵문제를 국제공세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앞장서 벌이고 있는 모습에서 민중들은 영삼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93년 정권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관념적인 논란과 혼란의 과정이 93년 하반기와 94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해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현재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문민정부 탄생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있는 민중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투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학도들은 이러한 정세를 투쟁으로 정면돌파해내고 있으며 수입개방반대투쟁과 학원자주화투쟁을 각 학교 별로 힘있게 벌여내고 있다. 4월 모로코 협정까지 이후 더욱 강도높은 대중 투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투쟁국면 속에서 여학생운동은 자기 내용성 확보와 청년학생운동에의 복무라는 역할 속에서 두가지를 분리시켜 사고하여 계속 이어지는 일상사업속에서 투쟁을 부담으로 여긴다든지 자기내용과 일상사업을 떼우기 식으로 하고 투쟁에 기조없이 달려간다든지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것이다.

모든 사업과 투쟁은 핵심을 만들고 단련시키는데 복무해야 한다는 명확한 관점속에 투쟁을 조직사업으로 연결시켜내고 여학생운동이 청년학생운동에의 복무라는 명확한 부문운동으로서의 자기 규명과 올바른 원칙속에서 정세에 어둡기 쉬운 여학생운동의 난점을 극복하고 일상에서 격하되기 쉬운 결의의 장으로, 단련의 장으로 투쟁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투쟁과 일상사업속에서 현시기는 어느때보다도 주체의 혁신과 결의가 요구되어 지는 때이다. 여학생운동은 투쟁속에서 자기 내용을 확보하여 단위 조직력을 탄탄히 세워내고 여대협 중앙으로의 통일집중, 강화시켜내야 한다. 지역여대협의 강화로 전여대협을 탄탄히 세워내고 이를 통해 한총련을 강화시켜내야 할것이다.

2. 여학생의 존재 규명

여대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남학생과의 차이를 먼저 얘기하기 보다 청년학생으로서 가지는 여대생의 특성에 대해 바로 짚어보겠다. 여학생은 청년학생으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선진사상과 시대추세에 민감하여 민족적 각성이 빠르고 높은 조직성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이기에 정서적이고 다정다감하며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주위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다. 이러한 관점을 바로 가져야지만 여학생운동의 방향성과 청년학생운동의 방향성이 같은 것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여학생은 이러한 긍정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왜곡된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여대생이라고 하면 노동착취와 봉건적 천대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근로 여성들과 비교해 어찌면 특권적 처지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여대생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의

중간층 이상의 남성과 결혼하여 계급적 상승을 꿈꿀 수도 있는 존재이며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살기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는 면제받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여대생의 모습은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책을 끼고 강의실을 드나들고, 휴일에는 미팅과 데이트로 시간을 보내며 첨단유행과 아름다운 옷과 화장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지며, 미국식 입맛과 문화에 찌들려 팝송과 미국배우를 숭배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배운 전공지식을 썩어버리는 한심한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 여대생을 겨냥한 각종의 상업잡지들이 자랑하는 판매부수와 여자대학주변의 풍경, 일부 여학생사이의 유행과 사치풍조는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각성이 낮고 학교 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활동적인 여학생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 여학생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러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대생의 사고 방식 자체가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학과공부에 적극적인 성실성을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자기 실현의지도 높아서 대부분의 여대생이 취업을 통한 사회적 자아실현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이러한 성실성이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폭 넓은 인간관계와 사회현실에 대해 접할수 있는 기회가 적고 실혹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도전할 용기를 쉽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 즉, 남학생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여학우를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졸 실업난과 취업차별로 인해 실업난이 여대생에게로 집중되면서 3학년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여대생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진출준비를 관점을 세워가면서 차근 차근 진행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학년에 들면서 개별화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와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제국주의의 노동착취와 봉건적 사회제도의 모순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남녀 차별구조를 이용한 제국주의의 노동착취는 여대생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즉, 여대생 또한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의 박탈과 각

종의 차별적 조건으로 유지되는 고용구조 속에서 수년동안 공부하고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고등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열려있는 교직, 공무원, 전산, 통역, 번역등으로 한정되는 제한된 사회진출분야에서조차도 여성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여 임금을 저하시키고 극히 제한된 진출밖에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는 봉건적 사회관습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성차별의 모순에 빠지게 한다. 즉, 결혼제일주의, '여자팔자, 결혼만 잘하면 되지' 하는 통념이 만연되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 환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집안에서의 봉건적 규제도 심하여 일상적인 남학생과의 생활속에서 의존적이며 예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20년간 교육속에서 길들여진 수동성과 의존성에 의한 것이며, 민주적이라고 하는 대학생활에서조차 이러한 근성이 보편화되는 것은 대학내에서도 존재하는 성차별의 봉건적 생활풍토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여자선배들과 주위의 여성들의 삶을 보면서 졸업 이후 사회노동에 참가하여 닦쳐올 여성에 대한 식민지적 억압과 차별의 현실을 깨닫고 있다. 또한 거의가 20대 초반이기에 양키의 퇴폐향락문화의 부산물인 인신매매, 성폭력의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이속에서 여학생들은 식민지 여성으로서 차별적 억압상황을 조금씩 느껴 나가는 것이다.

이 모든것으로 인하여 여대생의 위치는 변혁운동과 여성해방의 선봉대로서의 조건과 지향을 부여받고 있으며 남한여성의 혁명성이 무한정 잠재하고 있는 존재이다.

3.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고 학원내에서 여학우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대중운동이다. 그리고, 여권신장주의의 의미를 가지는 feminism과는 확연히 분리되는 것으로써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짓밟은 미제와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자기의 방향으로 갖는다.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 해방운동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대중의식화, 조직화사업과 투쟁사업을 자신의 1차적 임무로 한다.

여학생운동은

- 1) 지금까지의 제도교육속에서 주입받아왔던 성차별의식을 없애나가기 위해 남녀 공히 바른 여성관과 인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쟁취 해야한다. 그외 교과과정속에 있던 남녀차별주의적 내용을 일소 해야 할 과제가 있다.
- 2) 제국주의에 의해 학원에까지 만연해있는 성차별, 성폭력문화를 학원에서부터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문화를 양산한다.
- 3) 여학우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지금, 사회진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 4) 기층 민중여성의 생존권투쟁의 지지, 지원 및 각 계급 계층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모순을 야기시키는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벌여내는 목적의식적운동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여학생 스스로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의 건설을 통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운동이다.
또한 학생운동의 부문으로서의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강화를 이루어내고 여성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여성운동을 질높게 고양시키며 나아가 전체 변혁운동에 복무하는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여학생운동의 한계와 오류

- 1) 중앙지도단위 조직력의 미비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을 내어오지 못하며 중앙으로의 통일 집중이 되지 않아 여학생운동의 독자적 투쟁 사안을 대중적으로 풀어내지 못하였다.
- 2) 여학운이 대중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여학생운동이 전체여성운동을 위해서라도 담보해야 할 과제인 여성운동의 내용적 토대를 쌓아나가는 작업이 미진하였다.
기간 여학생회 사업의 성과로 여학생회 나름의 사업방식과 흐름을 잡아가게 되었으며 사업의 규모 또한 대규모적인 사업을 벌여내게 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이 진정 부문운동으로서 자기 내용을 가져 나가려면 지속적으로 여성운동 및 여학생운동에 대한 연구 조사작업이 진행되어야함에도 실무에 쫓기다 보니 많이 놓치고 있다. 이제 여학생운동의 내용에 기반한 사업을 해나가려 한다면 여학단위 전문성에 근거한

투쟁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것이다.

- 3) 단대, 과여학 골간이 자활력을 가지면서 자기대중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그 계열에 맞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단대, 과의 여학생회 골간이 매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려워 하였던 것도 자기대중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총여의 하청업체식의 사업 내용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이다. 중앙단위는 단위의 자활력을 높여낼 수 있는 지도력을 내려야 하고 기층은 여성농민운동, 여교사운동등의 학문의 영역 뿐만 아니라 단위 여학우의 특성과 정서에 근거한 독자적인 자기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여학 골간 단위 간부를 올바른 관점으로 단련시키고 재생산 시켜내는 체계와 형식과 내용이 없다.

여학생회단위 간부의 재생산 문제와 핵심이 없다는 얘기는 매해 얘기 되지만 여학단위의 활동가들을 단련시켜내고 핵심을 만들어 가는 과제와 여학생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여학단위의 간부들을 어떻게 활동가로 키워낼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되고있지 이것을 풀기위한 조직적 담보가 되지 않고 있다.

- 5) 여성활동가들에게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점을 심어 줄만한 조직적 담보가 되지 못했다.

- 6) 대중사업의 형식적 측면을 증시하다보니 사람의 준비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계를 건설하려는 오류를 낳았다.

총여, 단여, 과여의 골간체계 강화를 중심에 두면서 주체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체계부터 쳐보자는 형식주의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있던 단여가 없어지고 과여가 없어지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였다.

- 7)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의 분명한 방향이 없다.

여학생운동에 있어 의식화의 주된 장을 이루는 것이 여성문제 연구반이다. 그러나 여연 또한 통일적 지향을 갖지 못한채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은 여연일꾼과의 연석회의를 갖고 여성문제 연구모임과 여학생회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소모임일꾼과 여학생회일꾼들이 집단적으로 모일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통일적 지향을 모아보자.

5. 사상운동의 측면에서

들어가기 앞서 사상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해보자. 사상운동이란 사람의 자주적 삶을 지향하는 인생관, 세계관의 문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회에 대한 변혁의 관점을 세우는 운동전반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상운동은 어떤 이론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체화되고 변혁운동속에서 살아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1) 여성자주화운동의 관점을 견지함을 말한다.

운동이 발전할수록 목적의식적이고 통일적인 지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끓어오르는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진출이 보다 높아지면서 우리 여성의 자주적 투쟁도 비상이 고양되고 있으며 민족생존권이 달린 수입개방저지 투쟁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본 궤도에서 전개라는 대과제를 안으며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탄탄히 해들어갈 사상이론적 통일이야말로 어느 시기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관계속에서 '여성자주화운동'의 관점이란,

첫째, 미국에 의해 더욱 공고화된 봉건적 사회관습, 남녀차별구조를 이용한 노동착취, 한반도 여성을 유린하는 주한미군범죄의 본질과 미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폭력문화 양산, 분단의 현실속에서 군사비 과중으로 인한 여성복지정책의 부재와 여성정책의 허구성 등 이것이 바로 미군의 점령하에서 식민지 여성에게 자행되어지는 짓임을 명확히 바라보고 반미가 한반도 여성 자주화의 길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일년이 다되어가지만 우리 여성들의 삶은 변한게 없다. 몇년에 걸쳐 여학우와 여성단체에서 추진해왔던 올바른 성특법 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성특법은 정조관념을 기본으로 삼고있고 피해자 인권보호측면이 미약한 눈가림식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간제 근로 합법화, 생리휴가폐지, 성차별을 고착화하는 신인사제도 용인등 문민정부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윤금이씨 투쟁을 하면서 정권이 자주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땅 어느 누구도 성폭력 주범 주한미군의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최소독립국으로 가져야 될 수사 및 재판권의 포기과 살해미군을 보호하는 것으로보아 조금도 자주적 정부가 아님을 알수 있다. 이에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는 반김영삼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둘째, 근로 여성의 입장과 관점, 즉 계급적 관점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 민중의 입장에 섰을 때만이 우리 혁명의 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 근로 여성이야말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장 높이 체현하며 가장 억압받고 착취받는 계급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단결의 사상을 체현한다.

분열은 지배자의 논리이며 단결은 착취당하는 민중의 생명이요, 무기이다. 고립 분산적이고 개인적인 생활에 젖어왔던 우리 여대생의 경우 쉽게 현실안주와 분열주의에 물들 수 있고 특히나 여성운동의 초기에

무분별한 서구 여성해방이론을 수용함으로써 남한여성의 특수성에 근거하지 못한 부르조아적 분열사상, 즉 계급과 성의 분리, 보편성에 기초하지 못한 특수성의 강조등으로 여성과 남성 혹은 여학생회와 학생회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편향과 오류를 겪기도 했다. 헌신적이고 포용성이 넓은 어머니의 품성을 가장 잘 체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여학우들의 단결의 모범은 대중운동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여학생운동의 핵심적 요건이다.

내제, 낙관적 승리의 관점을 세우자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이 자기 대중에 입각한 사업과 투쟁의 내용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4,5년이다. 여학생회간부들은 사상이론적 체화의 경험이 낮고 학생회사업의 단련 또한 미숙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1년마다의 사업과 주체의 단결이 심하여 한 해동안 어떻게든 성과를 가질려고 하다보니 기층 여학우의 힘에 근거하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든가 '요만큼만 하지' 등의 자신감없어하고 소극적인 사업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조급해져서 곧잘 학생회간부들과 부딪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속에서도 쉽없이 헤쳐나간 우리민중여성의 낙천성과 지혜로움을 상기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드높은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을 확고히 세우자.

이 모든 부분을 틀어 쥐고 작은 투쟁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고 진취적인 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여학생운동속에서 갑갑함을 느끼 필요도 없을 것이며, 실패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학우대중의 힘에 근거하여 투쟁하고 고무하며 단결해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여학생운동의 의식화, 조직화의 관건이라 할수 있다.**

2) 통일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여학생운동의 내용과 계획을 매시기 사업속에서 녹여냄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여학생운동은 장기적인 전망을 내오고 그 속에서 시기마다 제기되는 의식화 조직화의 내용을 내오기보다는 당장 제기되는 사업의 준비와 실행에 매달리다 보니 처음 시작할때의 자신감과 열의는 자꾸 떨어지게 되고 여학우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 사업의 전망을 내오기 위한 여학우 대중의 의식 흐름과 객관적 정세의 분석에 소홀해지게 되고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이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한 치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업의 준비로 고립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여학생회 사업이 아니라 운동의 관점을 통일하고 각 학교 단위마다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실천하자.

3) 전체 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의 과업을 찾고, 결합관계를 마련하자.

(☞ 자료집의 부문계열운동론에서 자세히 봅시다.)

4) 대중의식화의 과제와 부문운동으로의 전문화를 이루어낸다.

여학생회 사업의 내용적인 면을 보면 여성문제에 관한 여학우들의 다양한 요구속에서 자주여성으로의 삶을 이끌어 내오고자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여학우들이 여성문제에 있어 가장 집중적으로 느끼는 지점을 의식화의 주 내용으로 하였는데 기간의 '성폭력문제'의 경우 성폭력문제의 의식화 작업의 성과는 전국적인 사건--보은진관, 윤금이씨 사건--에 기반하면서 심각성을 확산시켰다. 또한 성폭력의 사회구조적인 본질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생활속에 만연한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과 사회구조 본질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학우들의 실천과제를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학우들의 다양한 의식수준에 기반한 의식화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즉, 여성자주화 관점에서 투쟁하는 학우들에서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학우들등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학우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여성자주화의 관점을 이끌어올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활동가들 대상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작업과 일상적인 여성문제교양작업을 여학우뿐만 아니라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문운동은 자기 내용성으로 전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우들 또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나타냄과 동시에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한다. 여학생회는 여성자주화의 관점을 틀어지면서 사업내용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6. 조직운동의 측면

조직운동이란 사상적으로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지닌 사람들간에 짜임새를 말한다. 우리의 변혁운동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자주화 관점의 사상적 통일이 보장되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에서 조직운동은 대단히 취약하다. 대경여대협에서 이제 추상적인 조직운동의 방향과 목표만을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방도를 내어오고 이를 통해 여대협 중앙으로의 조직적 강화를 이루어내어야 하겠다.

1) 간부 역량의 강화

① 간부교양 사업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대중사업공간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간부교양의 혁신과 내용을 마련하여 전투적으로 해내야 한다. 교양사업은 개인적인 사상학습을 기반으로 집단적으로 총화되도록 해야 한다. 간부교양은 여학생운동의 주인된 자세로서 사업과 투쟁에 체화되어야 하며 전체 운동속에서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운동속에서 여성운동의 자기 전망을 고민하게 해야 한다. 기층까지 실현될수 있는 교양 일정과 구조, 그것을 책임지고 해들어갈 주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매시기 정세와 투쟁사안에 대해 연구 토론하는 시간을 꼭 갖고 모두 신문을 읽고 매일 발제하는 시간을 갖자.

② 부서의 전문성 확보로 여학우의 삶에 밀착하자.

자기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무에 능한 간부를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는 간부로서 자기부서 사업을 고민해 들어가는 자세를 철저히 세움을 의미한다.

③ 각학교 여학생회 단위와 여대협 주체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하자.

④ 부서 연석회의 안착화를 통한 간부 역량강화.

부서의 통일성을 담보하는 각 단위 부서장 연석회의를 안착화 시켜내고 기층간부와 중앙과의 감을 좁혀내어 기층 간부에 대한 여대협 중앙의 지도력을 높여내야 한다.

⑤ 간부정책과 단련 내용이 필요하다.

2) 조직강화의 측면

① 중앙단위 조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자회의의 질적 상승을 담보하고 안정화한다.

대표자들의 고민을 높여주고 각 학교의 현실적 고민들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해나가면서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각 학교에서 실천적으로 공유되고 전개될수 있도록 한다.

정세와 간부 단위실정과 여학생운동의 내용에 입각한 시기별 정책을 생산해 낸다.

여학운이 기초가 없고 정세에 둔감하고 간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러나 각 단위 학교 체계중에 정책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일개 단위 간부로서는 그 내용에 한계를 보여진다. 전체판을 읽고 있는 중앙에서의 정책 생산이 시급하다.

여대협 실무자에서 여대협 정책으로의 체계 전환이 요구된다.

단위 하방, 간담회를 정례화 안착화한다.

☒ 총련과의 정식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운 조직인 여대협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 정기적 결합으로 전체 운동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정책을 생산한다.

☒ 여대협 주체마련을 목숨을 걸고 준비한다.

② 투쟁속에서 핵심을 만들고 단련시키며 투쟁을 조직사업으로 가져가자.

모든 조직은 투쟁을 통해서 만이 강고하게 서나갈수 있다. 여학우의 요구를 수렴하는 실천 사안들을 모색하고 작은것에서도 투쟁을 벌여 나가는 기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계속 열리게 될 집회공간에서도 여학생회 스스로가 제기하여 하나하나의 사안들과 여성과의 관계를 학우대중에게 교양하고 여학운의 입장을 정립하여 여학우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투쟁속에서 여학생회 간부들을 단련하고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

③ 기층조직을 건설 강화하자.

☒ 모든 단대화 과에 주체를 준비하고 여학생회를 세울수는 없다.

핵심 단대와 과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중앙의 지도와 관심을 늦추지 말자.

모범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범을 어떻게 전파하느냐의 과제이다.

☒ 여학우의 삶의 근거지에서부터 자주적인 지향을 모아나가는 과로부터의 여학우모임건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탁아와 여연 소모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모임건설을 고민해보자. 1간부 1소모임 건설 운동을 벌여내고 역량이 안되 단대와 중앙 소모임으로 묶인 곳은 얼마간의 소모임 운영후에 다시 과로 돌아가 소모임 건설을 제안하자.

그리고 이를 고민하고 건설 관리할 체계를 세우자.

☒ 과여학생회를 건설하자.

가장 기초적인 여학우활동 모임은 바로 과여학생회의 전망을 둔 것이라 하겠다. 아직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과여학생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인식되고 있다. 과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이단위가 여학우들의 생활적 이해를 담아내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과가 건설된 곳은 학년별 여학생운영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여학우 삶의 내용을 담아내고 사업의 정형을 만들어가자.

7. 대중운동의 측면

대중운동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대중이 주민주체가 되어 사상운동을 체화하는 것이다. 대중운동은 학우들의 자주적 단결을 부단히 높여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대중운동은 사상운동과 조직운동에 대한 총화라고 할수 있다.

대중운동에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될 편향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다고하여 전혀 지도의 내용이 없이 무조건 따르는 이른바 대중추수주의적 모습이다.

1) 여학우가 주민주체로 서는 대중사업

여학생회 대중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학우가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사업은 단지 많은 학우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여학우의 변화와 계기를 갖는 것이다. 즉, 대중사업이 바로 여학우대중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중사업을 통해 여학우들이 살아있는 체험과 감동을 얻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학우들이 주인되는 대중사업으로 여학우들과 진한 교감을 느낄수 있는 대중사업을 벌여내자.

2)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할수 있는 대중사업

여학생회 사업은 여학우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폭로하는 사업이 많다. 가령 여학우들이 쉽게 이야기 할수 없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성폭력, 성차별 문화들을 집단화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만 하는 자족적인 대중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학생운동은 여성이라는 존재적 특수성에 기반한 운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체화할수 있을까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은 문제라도 우리 여학우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대중사업을 해나가자.

3) 중심적 사상흐름을 갖는 대중사업

여학생회 사업은 어느 단위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진다. 그리고 어느 단위 보다 구체적이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조직이 강화되고 사람이 남지 못하는 것은 중심흐름을 움켜쥐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해의 대중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그 해 전체 정세분석과 단위 여학생운동의 수준, 그리고 변화된 여학우들의 지향과 요구를 바탕으로 그 해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흐름을 먼저 모아 가자.

8. 연대사업 및 시기별 사업

1) 연대사업

① 탁아연대: 대탁과 연대

② 여성농민과 연대: 농활을 기점으로 경북 여농회와 연대한다.

③ 지역 여성단체연합: 성대협 및 기타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한다.

2) 시기별 사업

3월: 총노선 수립 및 단위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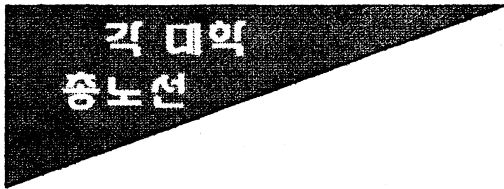
4월: 간부학교

5월: 출범식, 각대학 대동제 탁아모금운동

6월: 농활

7/8월: 여름간부학교

11월: 선거



경북대학교 자주 총여학생회 총노선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으로 여학우 삶속에서의 자주성 고양을 통해 민족 복원 당당한 자주여성의 삶을 실현한다.

기본과제

1. 총여학생회는 실질적 대표기구로 세운다.
2. 단대의 자립자활력을 높여낸다.
3. 생활단위 학회 소모임을 안착화시킨다.
4. 일상사업을 강화한다.
5. 올바른 관점에 입각해 여학생 운동을 풀어나가기 위해 간부혁신을 이룬다.
6. 생활속에 실천하는 여학생운동을 창출한다.

1. 총여학생회를 실질적 대표기구로 세운다.

문제의식>

이제껏 중앙운영위가 경대 여학생회의 실질적 대의기구로서 총여사업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단위였다. 그러나 중앙운영위만으로는 편차가 심한 단대의 상황을 다파악할 수 없고 실지로 기층 과까지의 지도와 사업 공유가 미비했다. 총여학생회가 실질적으로 여성문제를 칠천의 힘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는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칠천 여학우 한 사람 한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수 있도록 과의 주체를 만들어내고 그 역할을 높여내야 한다. 이에 총여는 여학우 대표자들에 기반한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실천적 과제로 함께 하여 칠천에 근거한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내야한다.

###방도###

1)전교 여학생 대표자회의를 성사시킨다.

전교여학생 대표자회의는 몇몇 간부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또 각 단위 여학우 주체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여학생회(부)장이나 여

부회장의 지위를 제대로 찾아 여대표에게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과
여학 사업의 모범을 소개하고 과여학 사업의 정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어 여학일꾼들의 질적 성숙을 꾀하는 자리이다.

또한 단대, 과 여학생회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문제를 함께 고
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2. 단대 계열 운동의 활성화로 단어의 자립자활력을 높여낸 다.

문제의식>

단대가 자립자활력을 가질려면 먼저 과어나 여대표에 대한 지도력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단대 여학우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해서 사업을 하
는 것이며 각과의 수준에 맞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
를 강화시켜 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의 사업이 과여의 강화에 복무할
수 있도록 자기 단위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지도해 내어야 한다.

또한 단대학우들의 요구를 잘 수렴하여 중앙으로 통일시켜 내야 한다.
단대는 중앙의 사업을 전달하는 단순한 통로는 아니며 중앙의 내용마련
의 풍부한 육토이자 중앙 사업을 단위에 맞게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윤회유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대의 실정에 근거한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사
범대의 여교사 문제와 같은 계열운동의 독자성을 살려볼수도 있겠고 그
것이 학문의 영역만으로 고민을 할게 아니라 단대의 정서와 특성에 근
거한 내용으로 일상사업이나 시기별 사업에서 녹여내야 한다.

###방도###

1) 단대 여학이 과여의 지도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여학생회 연구 소 위원회의 강화 및 분화

과여학생회 건설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가 달별 과사업 정형을 마련하
였으나 전 단대에 똑같은 내용으로 내려져서 실질적인 적용이 많이 어
려웠으며 딱바로 과로 내려감으로써 단대의 과지도력 담보라는 측면에
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제는 인문대 사회대를 중심으로 한 과
여 집행부체계가 마련된 단대와 사범대 자연대를 중심으로 한 여부회장
으로 된 단대, 단대 여학이 없는 곳에 대한 지침을 분화해서 마련하고
이를 단대로 내려 단대회장님들이 과실정에 맞게 직접 지도해낸다.

2) 여연연구단위를 통한 내용적 지도로 각 단위가 여학우에 근거한 자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사업에 가져가게 한다.

단위에 정책이나 연구단위가 마련되어 단위 실정에 맞는 내용과 정책
이 생산되어야 하나 아직 단대의 역량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중
앙연구 단위로 집중을 하고 단위에 필요한 내용을 생산한다.

3) 세로모임의 안착화를 통한 집행력의 강화

각 단위의 집행단위가 튼튼히 서지 못하다보니 단여쌍이 중앙의 내용을 단대에 푸는 데에도 힘겨움이 들었고 실무부담까지 하게 되었다. 집행단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여학생회를 내용적으로 풍부화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부서의 세로모임은 꼭 필요하다. 이속에서 중앙단위의 내용이 각 부서를 타고 전면적으로 공유되며 특히 각 부서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피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대간부의 내용성 부족은 결코 단여 회장의 지도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총여, 단여, 과여가 세로모임이라는 형식을 타고 전문성을 담보했을때 단여회장은 실무부담을 덜고 내용의 고민과 전체 여학생운동 속에서의 단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가 녹아나는 다양한 생활단위 소모임을 건설, 안착화한다.

문제의식>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는 여학우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이것이 개별적이고 과가 생활근거지가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타아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는 많은데 단위주체의 부재로 소모임으로 안착화시킬 지도가 없었다. 여연이 건설된 과는 많으나 개개 여연 별로 진행되고 있고 책임고 토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여연을 생활단위 소모임으로 정착시켜 생활적 결합을 높여내고 여성문제를 실천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소모임 건설지도를 단여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해내야 겠다.

###방도###

1)과단위 취업준비 소모임 건설

학업이나 취업준비에서 분야가 비슷하고 전공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소모임으로 엮어 다양한 정보공급과 지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2)대중적 행사사업을 통한 여연, 타아소모임 건설

타아나 여연이 아직 건설되지 못한 과에서는 예비대학때 신입생과의 결합력을 최대한으로 높여내고 큰 기획사업을 통해 여기에 참가한 학우들을 소모임에 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단대, 과여에서 고민을 발전시킨다. 특히 단어나 과여가 없는 단대에서는 총여가 기획사업을 통해 소모임을 건설하고 여연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여학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3)여연을 생활단위 소모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여연단위에서 단위내용에 기반한 내용으로 운영지침서를 발간하고 교사모임, 세로모임을 통해 지도한다. 여성문제를 실천으로 풀어내는 곳이 여학생회이므로 여연과 여학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

4) 타아소모임의 정착화

올해는 단위의 주체가 마련되었으므로 중앙과 일관된 맥으로 지도하고 단어는 개별적인 타아활동에서 소모임으로 정착시켜 여성문제 인식을 기한다.

4. 일상사업의 강화

문제의식>

여학생회 사업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으로 비상벨을 끄는 여학우들이 많았다. 이는 여학생회의 중요성을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일상사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하지만 단순한 복지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매개를 통해 여성문제 인식 확산을 통한 자주성 고양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틀어줘야 하겠다.

###방안###

1) 중앙부서의 전문성확보로 여학우 삶에 밀착한다.

올해는 총여의 인복이 학자로 발전되어 여성학교과과정, 여성전용 취업 센터등 한층 발전된 여학우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학술, 편집, 여연 연구단위, 선전부 등 대중의식화 사업에 있어서도 체계가 전문화, 세분화하고자 한다.

학술은 대중교양사업을 증점적으로 고민하며 강연, 영화제의 정기화, 여성과 사회수업 공개, 성교육내용 보강과 전면화를 고민하고 여연은 여성학의 깊이있는 내용과 단대에 맞는 내용생산등을 고민한다. 편집부는 월별 신문발간과 총여 기관지 발간을 하고 선전부는 행사홍보 차원에서 기획선전의 강화로 여성문제 인식확산을 가져온다.

2) 여학우 의사개진운동

일상적인 여학우의 의식흐름과 요구, 총여사업을 학우들속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 여휴를 통한 여론수렴, 사업 후 평가 사진전, 이동총여, 과순회 간담회등으로 진정 여학우 삶속에 여학생회가 놓여져야 한다.

5. 올바른 관점에 입각해 여성문제를 풀어갈 간부혁신을 이룬다.

문제의식>

부문운동이 자기 내용의 전문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자연 소멸하며 전체 운동에 복무하지 못하면 분리와 대립을 가져온다.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자기 내용성 확보와 끊임없는 여학운에 대한 교양으로 여학운에 대한 자긍심으로 여학우의 자주성을 고양시켜낼 간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방안###

1)간부의 생활혁신

중앙의 간부정책 마련을 통한 여학간부의 올바른 상을 내어오고 조종례, 생활총화, 전원조례 등을 통한 간부의 생활력을 높여낸다.

2)간부교양 내용의 생산으로 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

일꾼학교의 적절한 시기별 개최와 참여, 단·여 단위로 간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상시적으로 공급하며 세로모임 단위로도 실무와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을 실시한다.

6.7천의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여학생운동의 창출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한다.

문제의식>

여성문제를 느끼는 7천 여학우 모두가 스스로 여학생운동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방안###

1)물같이 투쟁의 전복현화

2)지역빈민 타아활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농활을 통한 여성농민과의 힘찬 연대, 지역 여성단체와 연대

3)기지촌 활동의 토대마련

4)성폭력 주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운동본부와 연대.

경산대

학우 대중에 기반한 여학생 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중심인자 발굴을 통한 기층단위 강화의 토대를 구축하자.

첫째, 간부에서부터 학우대중속으로 올바른 총여학생회의 위상을 정립시켜 나간다.

둘째, 700여학우의 총여학생회가 아닌 3000학우에 근거한 총여학생회 건설

셋째, 여학일꾼의 생활적, 사상적 혁신을 내오자.

네째, 올바른 조직적 체계 마련으로 전문적 여학생 일꾼배출의 토대를 구축하자.

☞ 반미 조통 투쟁의 폭발로 95년 연방 통일 조국을 예비하자.

분단 반세기를 결코 넘길수는 없다는 우리 민족의 염원은 힘찬 조국통일 투쟁으로 분출되었고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통일로 가는 조국의 역

사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투쟁으로 받아 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각 단위 상황에 맞는, 철저히 학우대중에 근거한 조국통일 촉진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1. 통일에 대한 사상적 관점을 정립하자.

분단이 가지는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통일에 대한 시각이 기존의 구체적이지 못한 “통일!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당위적인 투쟁이 아니라 통일을 전국혁명의 최소강령이자 당면 혁명의 전략적 과제로써 받아 안으며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도록 하자.

2. 통일에 대한 올바른 사상적 관점을 틀어쥐고 청년경산의 단위에 맞는 통일투쟁을 준비하자.

자주교류 투쟁을 통한 또하나의 조국 북한 바로알기를 통해 연공연복 의식의 대중적 확산을 이루어내자. 93년 그 어느 단위보다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던 조국통일위원회의 자주교류 투쟁의 모범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모범 창출을 낳을 수 있도록 총여 단위에 맞는 자주교류를 준비해야 한다. 93년 자교는 학우들속에 우리도 북한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남겼다. 이러한 성과를 힘있게 받아안자!

3. 94년 제6대 총여학생회의 자주교류 투쟁!!

총여 단위와 결합할 수 있는 북쪽의 단위를 명확히 꾸리고 우리의 내용을 틀어쥐고 자주교류에 임하자. 그리고 철저히 학우대중에 근거한 자주교류 투쟁을 전개하자. 자교를 제기하는 준비기부터 실행, 평가까지 철저히 학우들과의 공유작업을 가장 큰 중심에 두어야 하며 자교의 성과 또한 학우들과 함께 받아 안으며 학우들에게 또 하나의 조국에 대한 인식작업과 북한은 더이상 우리의 적이 아닌 함께 조국통일투쟁에 나서야 하는 주체로써 연공연복의식의 대중적 확산과 이루어내야 한다.

⊘ 하부단위의 건설, 강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기간 총여를 평가해보면 항상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기층단위의 부재, 그에 따른 총여학생회 지도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하부단위 건설, 강화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때 4,5대를 거쳐 오면서 고민되었던 여성문제 연구모임과 각 과 여학생부 건설, 강화를 이제는 구체적 실천 방도로 고민의 방향을 옮겨야 할때인 것이다.

1. 여성문제 연구모임의 건설 강화

과내 소모임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우므로 총여에서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중앙여연을 제기한다.

여연은 여성문제의 인식을 확산하고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

한 실현방도를 모색하며 전문적인 여성일꾼을 배출해 내고, 기존의 독서토론 위주의 소모임이 아니라 학우들의 대중적인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실천을 통해 여성문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분야별 소모임을 제기한다.

이후 과단위나 단대를 책임질 여성일꾼을 발굴, 육성해낸다.

2. 각 과 여학생부 건설, 강화에 힘쓰자!!

지금까지 각과 여학생부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던 것은 과단위의 학생부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인자의 부족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제기되는 점은 여학생부의 올바른 지위와 역할을 규명해내지 못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 각 과 여학생부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되어야 하며 실제로 과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자를 배치하고 운영위의 안착화, 여학생부장들의 활동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학부 여학생회와의 긴밀한 결합이 필요하다. 과단위와는 고민의 수준이 다름을 인식하고 기존의 학생회 사업의 분담이라는 여학생회 활동에서 벗어나 여학생회 내용으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진정한 간부혁신을 내오자.

5대부터 여학생회 집행부들을 중심으로 여성학학습을 진행시키면서 여학 일꾼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각 단위 여연 건설에 대한 고민을 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 간부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해명을 해내자.

1. 전체 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이라는 부문운동에 대한 관점정립과 아울러 어떻게 부문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전체운동에 복무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틀어줘자.

가장 먼저 부문운동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여학생 운동의 지위와 역할 규명, 청년경산에서 총여의 위치와 여학운의 실정등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나가자.

2. 생활적, 사상적 혁신을 이루어내자.

특히나, 94년 총여 일꾼들은 기층단위를 건설,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로 풀어야 할 주체라고 했을때 올바른 지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양, 학습을 통해 여학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생활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 자주여성, 민주남성을 포괄하는 대중사업을 준비하자.

여성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있어 주체는 여성 스스로가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풀어나

가는데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타격대상이 아닌 함께 해나가야 할 민주남성을 포괄하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

기존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간단한 설문조사나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그 대상을 여학우에 한정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대중사업이 여학우 대상이 아닌 남학우와 함께 어우러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되어져야 한다.

함께가는 학교나 학술제등의 큰 행사 속에서 남학우들의 참여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간단한 의식조사나 교육사업도 남학우를 포괄해야 한다. 그밖에 총여 기관지인 "사로여성"에 대한 배포 방법도 새롭게 고민하면서 많은 학우들의 기관지가 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구대 여학생위원회 총노선

1. 올해에는...

대구대학교의 역사상 93년은 학원자주화 투쟁의 질적인 비약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학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선총장옹립투쟁과 재단이사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서 교수, 학생이 노력했던 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되고 불란많은 집안의 가족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올바른 가장을 세워내고 함께 고락을 나누는 동안 스스로도 문제를 척척 풀어나갈수 있는 사람이 되는 때였다는 이야기이다.

93년은 그런 투쟁의 시기였으므로 학생회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고 과학생회까지도 그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회의 학자와 투쟁영역 이외에 다른 기능들은 다 뒤로 미루어지고 계획은 폐기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올해 관선이사 파견촉구와 민족대학 건설이 학자의 기조로 되고 있다. 이것은 93년 처럼 전면적인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학자의 다른 영역인 교육재정 확보등과 민족대학의 상을 올바로 그려나가는 우리의 생활과 근본적인 요구에 의거한 사업들이 전체의 근간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런 내년의 개괄적인 학내정세의 판단속에서 우리 여학의 사업들은 전체기조와 통일성, 독자성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학의 통일성과 독자성이란

이런 국내외 정세, 학내정세의 판단속에서 여학은 93년을 학자에 흡수적으로 통일성에 방점을 찍어 결합했었다면 94년은 통일성과 독자성을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 통일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학자를 함께 고민하고 사업으로 풀어가야 하

고, 여러가지 정치정세도 여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자는 기본적으로 1만 5천 전체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것이므로 여학우의 특성에 맞는 것을 고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패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적 문제 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사업전개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면 이런 말들을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줌마들이 다 망친다.' 이 말은 개인적이고 소극적이며 정치나 사회와는 동떨어진 여성을 고립시켜 놓고 선거때 돈봉투를 바라거나 남편이나 자식들의 의견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주부들을 여성 개인의 무의식과 나아가 여성전체를 비하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여성들은 정치에 무감각하다. 이것은 어릴때부터의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탓이지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 사회적인 인간이 아니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에서 여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될때 성차별 또한 여성의 힘으로 줄어나가고 남녀평등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독자성을 본다면 올해처럼 투쟁이 계속 진행된다면 여학은 전체의 기조를 함께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대중인 여학우들의 특성들은 사업으로 풀어내지 않았을때 이는 기본적으로 여학우의 조직인 여학이 여학우들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럴때 힘들더라도 기본적인 여학의 사업은 진행해야지만 진정 여학우들을 위한 여학이 될 것이다. 만약 그런 부문운동, 우리대중에 근거한 사업을 전개하지 않았을 경우 여학은 필요하지 않다는 정서가 생길 것이며 그런 약화가 이후에 여학이 정작 필요하게 되었을때 여학은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이제 독자성은 94년에 그 토대와 실험적이고, 작을지라도 사업을 실현해야하는 근거이다.

3. 우리는 지금 어디에

독자성이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판단근거를 낳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제10대 여학생위원회는 91년 기만적인 회칙개정 이후 여학우들의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뽑힌 3번째의 위원장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선거라는 공간은 학우들에게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게하는 장이다. 즉 여학우들의 대표자를 자기 손으로 뽑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두대를 채우게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학이 여학우들의 대표성을 올곧게 보장받지 못하는 기본적 이유가 된다.

또한 단대의 여부장이 인선된 단대가 7개 단대 뿐이다. 이것은 여학이 아무리 삼박한 사업을 기획한다고 해도 13개 단대중에 반밖에 집행이 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체의 90개 가까이 되는 과

중에서 과 여학생부장이 있는 과가 몇개과 인지는 파악도 할수 없으며 단위의 주체 또한 세울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단위가 울곧지 않은 중앙의 여학생위원회는 모래땅에 지은 집과 같이 대내외적으로도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없다.

4. 여학우들은 어떨까

93년 학자투쟁 과정속에서 여학우들의 자주성은 전체 학우들의 자주성 고양과 더불어 많은 발전을 보였다. 그 근거로는 여학우다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문대가 학자의 전과정에 모범을 보였었고 또한 민주당사 점거농성을 전개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했다. 집회에서도 그 참가수와 함께 여학우들의 모습은 비주체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더불어 요즘은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양된 여학우들의 자주성은 93년 학자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조직적으로 묶여서 보이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94년은 조직적으로 여학우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고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으로 하나씩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5. 올해의 구체적 목표

♣ 의식화에 있어서

여학우들에게 94년 동안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사업속에서 녹아나며 선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학우의 주인되기', '스스로 사랑하기'이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길들여져 오면서 '나는 여자인데, 여자라서..., 여자인 내가 아무리 노력해 봤자' 하며 자신의 인간됨을 부정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존엄하다고 생각해야지만 여성으로서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전체의 사람을 중심으로, 학우들을 중심으로 사업해야하는 학생회의 기본기조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의 주인되기 속에서 여타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의 동참도 가능할 것이다.

♣ 조직화의 목표

먼저 여학우들의 현 상태를 진단하면서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 속에서 조직화는 여학의 존재와 맞물려 우리 역량에 맞는 한도 내에서 잘 진행해야 한다.

▣ 주체의 강화

무슨 일이든지 책임지고 진행하려는 사람이 많은 고민과 능력을 겸비해야 다른 이들의 능력과 보태어져서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단순한 일에 대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인간적 능력도 함께 지칭한다.

이 주체의 강화는 중앙의 여학위 내부의 강화와 단대 여학생부의 강화, 과 단위의 주체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볼때 우리는 중앙 여학위의 강화와 단대 주체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직까지 과는 여학생부의 구성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중앙에서부터 튼튼히 구성하여 과까지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되는 단위는 과 또한 부대를 중심으로나 부회장제도가 있는 과는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여학생부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해야 한다.

이 주체강화는 여러방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교양을 통해서 그리고 주체들이 계속 만나고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연구반의 단위구성과 강화

여성연구반은 생활속에서 때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게 하는 그리면서 생각하게 되는 여성차별과 문제들을 소담하게 서로 나누고 공부하면서 깨달아 갈 수 있는 모임이다. 이 여연은 단대 여부장들과 함께 중앙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 과 단위에서도 친구들끼리 구성할 수 있다. 과에서 구성하는 것은 단대 여부장님들이 1학기 중반까지 사업의 감을 익혀 맡을 수도 있고 중앙 여학위의 여연부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 여연에 관해서는 이후 계속 내용공급을 하기로 하겠다.

▣ 여성일꾼의 재생산 구조 만들기

단대 여부장들도 여학생부나 위원회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경험이 있다면 더 잘 할 수 있고 고민이나 사업도 장기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진행될 것이다. 단대의 여학생부가 부서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잘 골러가야 중앙의 여학위도 집행부를 단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확신에 찬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과의 여연 구성과 단대의 안착화로 여성일꾼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어야 겠다. 이는 단대 뿐만이 아니라 중앙도 사람 사업을 함으로 실질적인 강화가 될 것이다.

대구 고대 여학생위원회 총노선

1. 들어가며

역사속에서 여성은 인간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받고 차별받아 왔다. 여성들이 자신을 전체의 해방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투쟁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초, 우리나라에서 여성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로 교육에서 소외받았던 여성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이 시점에 여성운동은

참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놓았고 여성 단체를 결성하여 사회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이제는 페미니즘이 결코 소수 엘리트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여성이 여성을 바로 볼때 세상의 절반은 억압받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의 상품화로 자본주의 여성은 또 한번 혼란을 겪게 된다. 작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학교내의 학우들도 페미니즘의 본 모습을 오해하는 바 적지 않다. 사회과학의 제분야들이 각각 사회를 해석하듯이 페미니즘도 사회를 해석하는 잣대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를 바로 앎이 시급하다.

여학생위원회는 상륙학우와 함께 여성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아이들은 여남 구별없이 자기 실현과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예비교사로서의 우리의 과제를 각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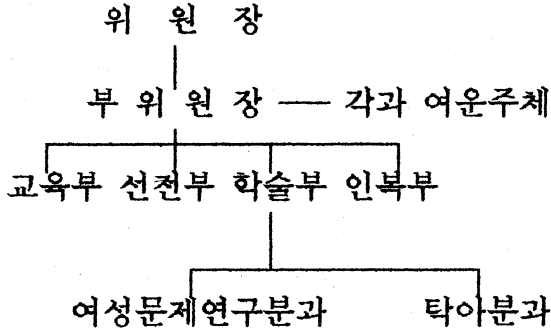
2. 위상과 역할

여학생위원회는 학우들의 공동체인 학생회 속에서 여학우들이기에 느끼는 어려움을 여학우들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공동체 조직이다. 학생회에서 받아 안기 힘든 여학우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들을 모아 여학우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 실현하기 위해서 여학우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찾아 긁어주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생활상의 부당함'을 함께 고민하며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학우의 주체적인 삶의 모색과 초등교육의 주체가 될 교대생으로서 여성의 왜곡된 삶으로 인한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 노력한다.

3. 사업방향

여학생위원회는 기존의 여학생국이나 여학생부에서 크게 발전한 형태로서 학내의 여학생운동의 강화를 조직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교대 내에서 여학생위원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정말 많지만 이제 여학생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 단계에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앞으로의 여학생이 주체가 되는 여학생운동의 정착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여학우의 의식 변화에 한 해 사업의 방향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과내의 여학생부의 신설과 여성문제연구소모임을 건설하고 타아 소모임을 지원, 강화하는 등 여학생위원회가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로모임을 만들어 갈 것이다.

4. 위원회 체계



여학생위원회가 학우를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우들 가까이 존재해야만 한다. 각 과 여학운 주체는 각 과 학우들과 여학생위원회를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여학우들의 문제나 다른 학우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여.위에 모여 공유하고 일반화시켜 각과로 가져가 과학생회 강화에 도움이 되게 하고 여학생운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5. 각 부 사업계획

학술부-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 모순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라는 시몬느 보바르의 유명한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라오면서 성차별로 빚어지는 억압들을 체험하면서 그것에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과 스스로 '여성다움의 신화'에 길들여지는 모습 속에서 자기 모순을 겪게 된다. 그것을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원래 여자는..."이란 말로 해결 방안을 찾아 보려는 노력을 묻어 버리던 소극적인 모습에서 여성문제는 역사적,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여성문제 공유와 인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해방 즉, 인간해방의 첫걸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기 진단이며 그 다음은 이러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릇됨을 시정하려는 노력과 실천이다.

*사업계획-여학생운동주체마련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 건설 및 지원 강화

-탁아 소모임 건설 및 지원 강화

교육부-왜곡된 성지식과 성문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체적 인간으로서 성을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의성교육, 성차별 문제를 통해 성교육을 점검하고 여교사의 선 자리를 통해 올바른 교사상을 밝힌다.

*사업계획-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자료집 발간

-민들레 학교에서 성교육 동아리 마련

- 여교사 문제 홍보
- 여성학 관련 도서 비치

선전부-각 부서의 연계를 통해 매 시기 사업에 대한 창조적이고 신속한 선전과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의식화 사업을 통해 여학생위원회가 지향하는 점들을 학우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여학생위원회와 학우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업계획-3.8세계 여성의 날 홍보

- 여학생 전용 게시판 설치
- 기획 자보
- 나의 계획 잡기
- 성평등 교육
- 신문 읽기 운동
- 여학우 의식 조사
- 여학생위원회 신문 제작

인권복지부-학내에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여학우들의 권익을 옹호한다.

*사업계획-여성문제 비디오 상영

- 미용강좌 초청
- 알뜰 시장 개최
- 금연 구역의 확대
- 여학생 전용 자판기 수시 점검 및 증설
- 취미교실
- 미용실 D.C

6. 기획 사업

- 2월-여학생위원회 신문 발간
- 3월-상륙여성주간
- 5월-여성학 학교
- 7월-탁아 봉사활동
- 8월-일꾼 모꼬지
- 9월-문화 행사(연극)

상주 산업대 총여학생회 총노선

과단위 여대표의 위상정립과 당당한 자주여성으로서의 인식고양으로 탄탄한 여학생회로 세운다.

기본과제

1. 과여대표자 건설로 여학생회의 실질적 기구로 세운다.
2. 여학우의 삶에 자주화를 이루어 내는 소모임을 만들어 나간다.
3. 간부 혁신으로 총학생회를 강화시켜 나간다.

월별 사업

- 2월: 졸업식
예비대학
- 3월: 입학식
간부수련회
세계 여성의 날 홍보
노래패, 여성문제 소모임 결성
- 4월: 4.19대회
- 5월: 대동제(열린 학교 준비)
김영균 열사 추모제
한충련 출범식
- 6월: 하계 농활 홍보
소식지 발간
- 7월: 농촌 봉사 활동
- 8월: 총여간부 수련회
통일 선봉대 및 범민족대회 참가
상반기 사업평가

일상사업

- 강연회, 영화상영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과 노래패
설문지는 매행사 전후로 두번 나간다.
매주 월요일 한주 계획을 세우고 그 주 금요일 평가를 가진다.
소리함 설치로 항상 학우들의 의견을 듣는다.

인동대학교 총여학생회 총노선

여학생 일꾼 주체의 확산과 강화!

체계의 안착화로 이천 오백 여학우의 믿음을 꽃피우자.

하나, 사업의 첫출발은 대표자와의 합의속에서, 마무리는 철저한 평가로
들, 간부의 혁신속에 강화되는 총여학생회
셋, 여성운동 인식의 장을 넓혀내자.

지난해의 평가

총여학생회가 9대를 거듭하면서 사업의 가장 큰 중심고리로 제기되는 것은 체계의 문제였다.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여학생들의 인식 부재, 여학생회의 활동 영역과 필요성의 문제제기가 해를 거듭 할수록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과에서 총여로 올라오는 골간을 울곧게 세워내는 것이었다. 9대에서는 크게 간부의 혁신, 단대여성부의 강화, 여성운동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장을 마련한다는 세가지 중심기조아래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갔다. 8대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였고 그속에서 나름의 고유한 영역(3.8세계 여성의 날, 열린 학교, 자주여성 주간 등)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속에서 가장 중심으로 틀어쥐어야 할 여학우들 스스로의 자주성을 옹호시켜나가는 관점을 확고하게 견지하지 못했으며, 학우들속에서 합의를 거치는 모범을 정형화시켜 나가지 못했다고 보아진다.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학생회의 골간체계가 울곧게 세워지지 못했고 여학생회의 사업의 성공 여부가 얼마나 학우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이 행하여졌으며 그 성과물로 체계의 건설과 일꾼이 튼튼히 남았는지라고 물어본다면 그간의 사업들이 다소 단절된 사업이 아니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학내의 체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학내이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나름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던 9대의 활동은 높이 평가되어지리라 본다.

현재 여학생회의 상황

매 선거시기마다 우리 학우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과 고유한 활동의 인식공유이다. 즉 구체적으로 학우들속에서 총여학생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1년을 시작하는 여학생회는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여학생회의 골간체계를 건설하고 그 밑거름이 되는 각 과 여학생대표자들과 단대 일꾼

을 올곧게 세워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내에 학우들속에서 의례껏 여학생회로 올라오는 사람은 과에서 부학생회장이 역할을 담당하는 여학우가 임의로 지정되어 올라오는 정도였고 단대 또한 여성부조차 없거나 사람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나마 여성부가 있고 여학생 일꾼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여학생 일꾼이라기 보다는 단대 학생회 집행부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해 전부터 학내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라든가 여학생 복지문제등 기층에서 올라오는 산발적인 학우들의 요구의 해결과 여학우들의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여학생회의 골간 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계획

- 2월 - 예비 대학(22~24)
집행부 모꼬지(25~27)
- 3월 - 3.8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진군식, 신입생 환영회
여학생 대표자 수련회 (둘째 주)
- 4월 - 제 2기 열린 학교
회보발간(첫째주경)
대경총련, 여대협 출범식
- 5월 - 김영균 열사 추모일(1일)
대동제, 한총련 출범식
- 6월 - 농활
- 7월 - 통일 투쟁
- 2학기는 자주 여성 주간
- 일상사업 — 각 단대 순회 간담회
화장실 관리
목요 영상
여성 자판기 설치
여성문제 소모임 꾸리기
특별 사업
취업 특강
성교육 강좌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 총노선

영대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방향성

-여성운동의 부문계열 운동으로서의 영대 여학생운동

오랫동안 우리는 학생운동의 위기에 처해있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외쳤었다. 학생운동의 위기, 그것은 단지 변화된 정치적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었으며 전체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위치지어진 대학의 위상과 그속에서의 대학생의 변화를 포함한 문제이다. 우리는 학생운동에게 과도하게 부과한 과제를 이제 충분히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전체변혁운동에게 이전해야 하며 학생운동은 그 자체의 위치속에서 -학원이라는 장소에서-변혁을 이루어내야 함을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의 수렴이라는 학생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학자사업이 아니라 학원전체의 제자리 찾기를 제기하는 학원대개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학원대개혁운동은 이제 우리의 당면 핵심사업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총여학생회의 정책은 '학원을 학원답게'라는 문제의식과 동일 선상에 있다. 우리는 여학우들에게 진보적 여성의식을 확산하고, 외래문화에 의해 그들의 사고및 생활이 외래지향적으로 향하는 것을 건강한 문화의식으로 바꾸어내고 자본주의가 살포하는 개인적, 이기적 성행을 극복하고 지성인으로 여성이 자기삶에서 진보성과 실천력을 가지기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크게 산업예비군으로서 대학에서 양성되어짐을 거부하고 진보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학원을 복원해내는 작업과 맞물리는 지점인 것이다.

여기서 여학생회의 위치는 나타난다. 바로 전체 여성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회의 강화이다. 영대 여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확대, 대중화의 한 방편이나 동원단위로서의 부문운동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다. 영대 여학생운동은 이제 전체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문제의식과 맞닿은 지점에 서있다. 학생운동의 위상 변화와 학우들의 변화는 여성운동의 외곽으로서의 여학생운동에 새로운 방향 전환을 강제한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의식이나 해결방안이 아니라 바로 여학생운동이 서있는 이 열악한 현실에서 시작된다.

영대 여학생운동의 방향성

영대 여학생운동의 위상과 관련하여 여성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을 앞에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영대 여학생운동은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만큼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이제 영대 여학생운동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위한 내부 역량강화에 중심을 두고 장기적으로 역량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내부 역량강화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한해 사업을 잘한다해서 될 것도 아니다. 이것을 장기적 목표로 두고 단의 역량강화에 중심을 두고자 한다. 단위가 건강해야 중앙도 튼튼할 수 있다는 생각아래 단위에서 스스로의 자활력을 가지고 내실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총여학생회는 단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적어도 2,3년쯤 후에야 힘들게 인선을 하지않아도 인자들이 남을 만큼, 간부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여학생운동이 전체 변혁운동의 부문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여학생회의 기본조직이라 할수 있는 여연의 강화로 여성문제가 여학우들만의 고민과 토론속에서 해결되길 바라기 보다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학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모든 학우들의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사업기조

1. 진보적 여성의식의 대중화에 주력한다.

우선 주목해야 할것은 여성 대학인의 변화된 위치이다. 예전에는 대생하면 여대생을 우선 떠올렸다. “간판따러 대학 온 사람”이상의 취급을 받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에도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고 싶다는 여대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하고자하고 자기 삶을 살고자하는 이들에게 사회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대학이 가진 위상의 변화와 그 속에서 아직도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며 그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몫을 챙기는 자본주의의 논리때문이다. 이들에게 취직은 다분히 멀게만 느껴질수도있다. 그러나 저학번일때부터 자기적성에 맞고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해 뚜렷한 지향을 가지며, 이것이 단지 꿈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양심적인 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예비노동자로서의 여성 대학인의 현실에 밀착된 부분이다.

이제 영대 여학생회는 여학생회에 몸담은 몇몇 사람의 것에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며 진보를 일구어가려는 7000여학우의 손으로 넘겨져야한다.

이에 여학생회는 진보적인 삶을 살고자하는 여학우에게 함께 고민할 제조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대학내의 소비지향적 문화를 건전한 문화로 바꾸어 낸다.

오늘날 여학우에게 나타나는 소비지향적인 모습으니 단지 여학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학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의 대

학은 갈수록 소비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말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대학에서의 문화와 이데올로기, 정보의 소비현상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소비현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와 토론은 찾을 길 없고 교수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받아적기에 바쁜 강의실의 모습이 바로 지식의 소비만 있지 생산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학의 대표적 자화상인 것이다. 향유와 수용만있지 창조가 없는 문화적 자세가 바로 문화의 소비이다. 이데올로기와 정보의 소비현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서 '객관적'이란 탈을 쓰고 나타나 우리 앞에 던져지는 이데올로기와 전보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의 대학은 해악적인 정보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일면적 사실에 호기심어린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이고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와 이데올로기의 홍수 현상이다.

그동안 대학은 지식의 소비현상에 대항해 다양한 제도적인 것을 활성화시켰다. 많은 진보적 학술동아리, 학회등이 그런 것이었다. 거기에는 상호설득과비판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제도외적인 것에서 배운 지식은 거리에서, 농촌에서, 공장에서 현장에서 검증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산 지식이 될 통로였던 진보적 학술동아리, 학회등도 침체되어가고 있다. 이제 제도적인 것들의 제도내화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제도내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문화와 소비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념으로부터 이 목적의식적인 문제제기에서 '현실로부터의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대학생의 다양한 삶의 내용과 공간을 담아내야한다. 그리고 문화의 전문성 추구하고 아울러 '대중주체 문화'의 형식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정보와 이데올로기의 소비현상의 이면에는 대학내에서 지배적인 성격을 갖는 정보와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많은 정보와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새로운 통합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상황은 당장 통합이데올로기를 갖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제 출발하자.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구성요소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내에서의 생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먼저 학교앞 문화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직접 조사도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나뉘의 판단을 가지고 이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또 일그러져 있는 여성상을 바로잡아나가는 비판활동을 전개해야 할것이다.

3.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의 자활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부문운동으로서의 자기위상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

은 자기의 문제의식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는 것이며, 그 기반을 유지할 자신의 내용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학생회에서 자기기반을 가지는 방법으로는 먼저 계속적으로 전개해오던 탁아 후원인모집제도와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단순히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여성취업문제와 함께 고민의 고리를 연결하여 끊임없는 연대를 추구하고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학내에서 진보적 여성의식을 확산해 들어가는 것으로 여학생회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학내 여학생회의 조직적 활동의 보장을 위해 과 여학생회장을 세움을 시작으로 과 여학생부건설까지 즐기게 이어가야 할 것이다.

4. 여학생회의 정치적 과제로 여성복지자금의 확보를 상정한다.

지금 학생회의 활동을 보나 여학생회의 활동을 보나 어디서나 가장 어려운 과제, 방향성이 모호한 과제로 남는 것은 정치활동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개인적, 자발적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사회조직의 원리와 관계들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문에 가장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선다. 파편화된 개인이 사회와 접하게 되는 것은 항상 조직을 통해서이다. 그 가장 일반적인 조직이 학생사회에서는 학생회이다.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민주주의이며 그것에 기반한 집단성이다. 개인과 집단과의 상호관계인 민주주의,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란 '정치사회' 내부에서의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사회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학생회를 조직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미 정치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다. 정치적 불감증과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학생대중의 탈 정치화는 단순히 그들을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부터 몰아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학생회의 전반적 영향력 감소는 학생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는 표현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대중의 탈 정치화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학생대중의 탈정치화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거부이며 이것의 여파는 그대로 '학생사회에서의 정치'에까지 이른다. 이것을 저지하는 것은 당면 운동주체, 학생회 간부들의 일차적인 목표이어야 한다.

탈정치화를 저지하는 것, 이것은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학생사회를 '재조직'하는 일이다. 학생의 사회로 다수의 이탈된 대중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은 학생회이다. 이미 수차에 걸친 노력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학생회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을 이제 실질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틀 속으로 학생대중을 흡입하여야 한다. 단조로운 삶의 테두리를 맴돌고 있는 학생대중을 사회로 이끌어 내야 한다. 탈정치화의 저지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더불어 우리는 다른 한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정치

활동, 정치운동의 '재활성화'이다. 학생회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과정상의 과제라면 정치활동의 재활성화는 그것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제 시각을 여학생회로 돌려보자.

여학생회의 정치활동하면 보은이 진관이 사건, 윤금이 씨 사건 등을 우선 떠올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활동이 사안 중심, 시기중심의 한 때였던 투쟁이 아니라면 우리가 중심으로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성대학인의 현실속에서 우리는 정치활동을 풀어 나가야 한다.

94년 제 9 대 여학생회의 정치활동의 목표는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여 탈정치화를 저지하고 학생대중의 학생사회로의 유입을 가속화하는 것과 교육재정의 확보와 여성복지자금의 확보를 위한 평화군축운동의 전개이다.

평화군축 운동은 하나의 민족은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낭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로서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당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속에서 평화군축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여연에서는 올해의 기획사업으로 평화군축을 통한 여성복지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대생의 현실에서 평화군축의 문제는 학원을 학원답게 만드는 교육재정의 확보로 이어진다. 평화군축운동은 영대 여학생회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투쟁의 전개를 위해 대경여대협에 압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사업내용

1) 자기삶을 계획하며 삶속에서 진보를 일구어가려는 실천하는 여성으로의 성장을 위한 여학생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단대여학생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대 여학생회는 실제 우리가 알고있는것 이상으로 열악하다. 이제 총여학생회는 혼자 독보적인 존재로서의 발걸음을 중지하고 단위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단대 강화 특별위원회는 항상 단대의 상태를 점검하고 단대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위상을 가지고 여학생회의 조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2)진보적 여성의식확산의 조건마련을 위한 여학생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여성학과목 '성과 사회' 과목에 참여 강의제 실시를 위한 조사및 착수를 한다.

'강의 평가제' 하면 '교수 평가제'로 호도되곤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에서 실시하려는 '참여 강의제'는 교수에 대해 강의 내용과 강의 방법등

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의 강의준비정도, 강의에 임하는 태도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고 아울러 강의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반 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할수 있다. 참여강의제의 실시는 여성학 강의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진보적 여성의식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

:창작교실, 매꾸기 살리기 운동, 목요 영화제 등을 기억하는가? 생활속의 작은 진보를 일구어갈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단순한 캠페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대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한다.

- '또 하나의 학교'를 대중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좀더 열린공간을 많이 만들자.

3)여성연대의 제자리 찾기

-탁아활동의 방향전환-후원인과 자원 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탁아 한마당)

:여성운동과의 연계의 하나인 탁아활동은 이제 단순한 자원봉사활동이나 후원금의 모집에서 여성의 취업현실과 유아교육과 맞물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라는 의식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그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후원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탁아관련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취업홍보실과 연계 '여성사회 참여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달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3, 4, 5월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종 소개, 6월에는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들을 초청, 사례발표. 9월에는 실제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영대인의 편리를 위해

-타자실 환경개선

:실제로 타자기는 작은 기업, 회사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타자실은 활용이 전혀되지않고 있다. 이 타자기들의 보수를 하고 학내 수강신청을 받고 계속적으로 운영한다.

부문계열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1. 부문계열운동의 성립배경

인류의 역사는 흔히 투쟁의 역사였다고 한다. 인류는 자신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데 항상 급힘이 없었다.

인간을 지배하는 낡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투쟁과 활동들을 운동이라고 할때 이것은 주로 계급, 계층별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질서라는 것이 토대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경제적 생산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해관계로 계급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급, 계층별 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등으로 구분하며 각 운동진영은 전체 변혁운동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부문운동이다. 하지만 그러한 토대의 규정으로 생기는 상부구조는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역작용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권, 법률이라는 기본적인 요소 이외에도 종교, 성별, 문화, 전문직등 상부구조의 다양한 영역들을 만들어 내고 이것들 역시 인간의 자주적 삶을 질곡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계급계층별 운동 이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양태로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문계열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문계열에는 여성운동, 종교운동, 언론출판운동, 교육운동등이 있으며 전체변혁운동의 보조역량으로서 역사속에서 통일전선운동의 강화에 그 동력으로 작용하며 우리 운동의 역사속에서도 검증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운동에서의 부문운동은 단순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상부구조의 역작용으로서 나오는 운동만은 아니라 민족해방투쟁을 해가는 데 있어 동력으로 작용하는 운동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은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발악적 만행을 응징하는 강위력한 무기로써 반제민족해방운동을 강화시켜 왔다. 구체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동력에 있어 통일전선운동은 외래의 침략세력적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혁명세력의 편에 서서 투쟁하는 광범위한 계급계층 부문대중을 그 대중으로 한다.

우리나라 부문운동도 이러한 민족해방운동의 길에 있다. 항일무장투쟁시 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노, 농계급외에도 청년운동과 천도교운동

을 의식화, 조직화함으로써 통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후 투쟁 속에서 여성운동, 종교운동, 문화혁명운동 등 광범위한 부문, 계열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동력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부문계열운동은 우리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부문계열운동의 성립배경으로 이제는 학생운동에서의 부문계열운동의 정의를 내려보자. 현재 수준은 한총련 운동과 부문계열운동의 정의를 정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운동내에서 부문계열운동이 무엇인가를 한총련의 조직운동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속에서 살펴보겠다.

2. 부문계열운동의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부문계열운동이란 학생이라는 사회적 처지이외의 또 다른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운동내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서 근거하는 학우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이다.

전대협 6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공식적으로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89년 「전대협」창간호에서 였다.

부문운동은 사회적 의식체계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바, 상부구조에 속하는 사회적 의식의 계 형태가 토대모순 격화정도에 의거해 역사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수행하는 운동영역으로서 여성운동, 문화운동, 종교운동등이 많은 나라의 역사속에서 검증되어졌습니다. 즉, 각각의 부문운동속에서 공통적인 의식적 체계로서 운동영역이 존재할 경우 부문운동의 기본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열운동의 각 부문운동의 규정을 받음과 동시에 그 운동내의 전공별, 전문별 운동영역을 일컬으며 노동자내의 산업별 노동조합형태, 학생내의 사범대학학생회협의회나 음악대학생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생대중은 사회적, 정치적 처지로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사회역사적으로 형성,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역사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속에서 또한 전공별 학문영역의 분화가 다양해지고 그 전문화정도가 엄청난 속도로 심화되면서 학생대중은 자신의 전공, 전문에 따라 특수한 성격과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분명하게 가지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총화하여 전체 학생운동에 보다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복무하고자 하는것이 학생계열운동이다.

학생운동 내에서의 일반적인 임무외에 부문계열운동에서 제출하는 독자적인 임무는 상화유기적으로 작용하며, 학생조직에서는 골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하는데 부문조직이 자신의 독자적 내용으로 복무한다. 반면 자주적 학생회는 부문조직이 다종다양한 학우들의 처지에 기반한 이

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활동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우들의 삶을 책임진다.

3. 부문계열운동의 역할

부문계열운동의 역할은 무엇보다 자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자기 대중의 자주성을 최대한 고양시켜나가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전체학생운동과 구국운동에서 부문계열운동의 역할을 살펴보자.

1) 학생부문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삶에 기반한 다종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 대변, 실현해야 한다. 또한 학우들의 정서와 취향에 맞게 투쟁형태와 방식을 여러가지로 구사해야 한다. 학생부문계열운동은 자신들의 부문별, 계열별 정서와 취향에 근거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투쟁형태를 아주 폭넓고 유연하게 내올 수 있다.

여대생으로서 삶이 억압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순을 헤쳐가는 투쟁속에서 여성억압의 원인이 사회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되는 것이다.

2) 학생부문계열운동은 학우들의 구체적, 생활적 요구에 근거한 조직건설을 아래로부터 이루어내어 한총련의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부문계열운동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로부터 그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학생구국운동에 펼쳐나선다. 민족자주교육쟁취, 민족문화의 대중화 등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는 백만청년학도의 일반적, 특수적 이해를 담보하면서 한총련이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그 동력이 된다.

또한 부문계열운동은 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회 기층조직의 강화를 꾀하는데 든든한 재부이다. 그 예로서는 단대운동이 계열운동으로서, 총학생회의 사업내용을 단순히 하달받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확실하게 엮인 자기 내용으로써 학우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학우들의 삶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서는데 복무한다.

3) 학생부문계열운동은 전체구국운동을 확대강화한다.

교대나 사범대 학우들은 전교조와, 여학우들은 여성단체와의 연대 등 부문계열조직은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집단적 애국적 사회진출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 전문분야로 진출하는 예비사회인으로서의 학우대중을 민주적으로 의식화, 조직화한다.

4) 이외에도 한층런 조직강화의 측면에서 부문계열운동의 본래의 역할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각 지역, 지구, 대학간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부문계열운동이 그 일조를 하는 것이다.

4. 부문계열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과제

1) 기간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평가

① 학생부문계열조직은 투쟁의 형식과 방법의 다양화를 이루는데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

여대협이 보은, 진관이 투쟁만을 보더라도 여대협의 주체적 역량에 맞게 자기자기한 공판투쟁, 모의재판, 재판관에게 보내는 탄원서쓰기 등의 투쟁은 투쟁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 다양화를 이루어낸 모범이었다. 이처럼 자신들의 주체의 준비정도에 따라 자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학우들을 투쟁의 주인주체로 묶어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② 학생부문계열운동은 사회 각 계급계층운동에 능력있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사회 각 계급계층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청년학생운동의 선봉대적 역할을 부문계열운동을 통해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 예로 작년 여대협의 미군범죄척결투쟁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여성문제에서부터 미군철수의 문제로까지, 여성운동을 변혁운동의 관점하에 구국 전선으로 발전 지향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각 계급계층운동을 전투화, 활성화시키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

③ 학생부문계열운동은 학생운동 골간단위에서 학우들의 다종다양한 이해, 요구로부터 출발한 학우들의 삶을 책임지는 활동을 보장하며 학생조직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 부문계열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사람의 준비가 부문계열운동 활성화의 출발입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학문적 생활적 이해와 애국의 열정을 하나로 집약, 집중하기 위해서는 각급 단위학우들의 생활적 이해를 잘 해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주인주체로 서나가는 것이다. 그속에서 핵심적인 사람의 준비가 부문계열 활성화의 출발일 것이다.

“백만학우를 잘 세워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처지와 조건에 부합되는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생활, 학문, 투쟁의 얘기하면서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식민지의 청년학생들이기에 생활 학문 투쟁을 이야기 할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지는 것을 고민한다. 이에 학생회

는 투쟁사업 중심을 운영이 아니라 애국적 삶을 총체적으로 실현해 들어가는 운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문계열운동 활성화의 의의가 또한 있다.

여대협의 경우 전체 여학우의 삶을 고민하며 그에 나서는 모든 문제점들을 헤쳐나감으로써 여학우의 자주성을 높여가고자 한다. 여학우의 구체적인 삶의 처지에 밀접하게 놓여 있을때 이는 제 힘을 가질것이고 자연스럽게 백만학우의 삶으로 이어질것이다.

“부문계열에서 자기 단위의 전망을 주동적으로 밝혀가야 한다!”

각 부문계열의 전망은 그 단위의 주체들외에는 누구도 밝혀줄수 없다. 치열한 고민으로 내용적 깊이를 더해가며 각 시기마다 능동적인 자세로 정세속에서 자기부문의 전망을 헤쳐나갈 때 부문계열의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맺으며

부문계열 일꾼들, 우리들이 우리 내용의 중요성을 느끼며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위에서 우리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용감하게 돌파구를 찾아가자. 이제 타부문계열조직 일꾼들이나 학생회 일꾼들에게서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 여학생회 일꾼들도 공부 좀 하세요.”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간부론

사만의 사랑모아 간부의 혁신으로 통일과 여성자주화를 향해 달려가자.
여성해방의 선봉대, 대경여대협 간부님들이여!

1. 자긍심있고 책임성있게 실천하는 여학생회 간부

간부란 아르바이트식 봉사가 아니다.

수업 다 들어가고 아르바이트하고 개인 약속 다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몸대주는 봉사가 아니다. 또한 7천, 3천 여학우와 여성해방을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간부가 아니다.

또한 열정만으로 집회만을 사수한다고 해서 간부가 아니다.

명백히 간부는 자신의 책임을 알고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수 없으리 만큼 완벽히 해내고자 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나의 잘못은 곧 내가 책임지고 있는 대중의 방기란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것이 바로 대중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 없는 신뢰없는 간부에게 어떤 대중도 결합하지 않는다. 대중에게 신뢰를 쌓고 대중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 혼란을 정리하여 대중의 갈길을 제시하고 그들과 더불어 할때 대중들은 우리 간부를 따를것이며 보다 확고한 지도 아래 여성 해방 운동을 벌여낼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간부의 모범을 총여 중앙의 모범으로 부터 아랫단위까지 확산되어야 하며 총여에서 과에까지 한데 묶여질때 자주적 여학생회의 전면구현과 통일조국 여성해방은 다가오는 것이다.

이제 조직운동의 골자라 할수 있는 조직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학생회 간부의 삶을 여기서 크게 두가지로 살펴 보겠습니다.

1) 자세의 문제

① 식민지 조국을 살아가는 간부로서 자기 발전에 치열한 모습니 부족합니다.

여학생회라는 공간에 매몰되다보니 시야가 좁아지고 자신을 부단히 발전시켜 자기 한계를 깨나가는 자기 혁신의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학생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변혁운동, 구국운동의 한 주체로서 당당히 서기위해 정치, 정세, 학내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사상적인 측면에서 자기 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학생운동의 전문적인 내용에도 늘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여학우를 만날때나 타 간부들을 만날때 자신감있게 만날수 있을 것입니다.

② 발로 뛰고 연구 조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앉아서만 사업을 구상하고 학우들이 오는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을 폭넓게 목적의식적으로 만나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모습, 발로 뛰면서 정보를 확보하고 그에 기반하면서 실사구시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여학생회 간부들의 대중속에 자기 기반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은 여학생회라는 공간 속으로의 매몰, 실천하지 못하는 안일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발로 뛰면서 실천하고 자기 기반을 확고히 해야 겠습니다.

2) 관계의 문제

① 여러 간부들은 작은 것도 잘 챙기고 책임지려 합니다.

여학생회 간부들은 서로에 대해 인간적으로 잘챙기고 책임지는 모습은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위의 폐쇄성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일반 여학우, 타단의 간부와도 폭넓게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② 자긍심을 갖고 대중과의 관계에서 승리합니다.

여학생회간부들은 피해의식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 됩니다. 남성중심의 운동풍토속에서 여학생운동을 실현해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자기내용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여유가 없기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학생회간부로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있는 태도는 대중들이나 타 간부들과의 만남속에서 여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③ 서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주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사적으로 친밀하다는 것이 때로는 무조건 감싸고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위와 역할을 자주적으로 높여내고 정치적인 관계로 질적으로 승화된 관계를 맺어 가야 겠습니다.

애정에 기반하여 그저 좋은 사람으로 만이 아닌 서로에게 배울수 있는 사상적으로 자극을 얻을수 있는 질 높은 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④ 넉넉한 마음으로 여학우를 믿고 변화를 일구는 여학생회 간부가 됩시다.

여학우대중은 변화는 더디지만 한번 변하면 가장 확실하고 아무지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몇번 만나지도 않고 쉽게 지치거나 사업속에서 한번에 변할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끈질기고 꾸준한 만남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책임지려 한다면 꼭 남는 사람이 됩니다. 조급함으로 여학우를 재단하고 실망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여유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학우를 믿지 못하는 여학생운동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하자면

여학생회 일꾼의 자기혁신의 상은

첫째, 여학생운동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간부의 상

>>여학생운동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존재적 특성으로부터 기반하기때문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이 나의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나, 여학우 대중이 나와 같은 처지의 여성이 아니라 대상화된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꾼들은 자신이 여성임을 사랑해야 하고 여학생운동의 변화발전이 곧 내삶의 변화와 직결되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여학우 대중에 대한 끈덕진 믿음을 가진 간부의 상

>>여학우의 존재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학우들은 사상의식이 낮다, 변화가 더디다, 개인적이다라고 규정짓고 조금하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여학우 대중에 대한 애정과 믿음속에서 자기활동 단위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생깁니다.

셋째, 발로 뛰고 조사 연구하는 자세를 갖는 간부의 상

>>여학우 일꾼들은 열정은 높으나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적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변혁운동 속에서 자신의 과학적 근거와 사상적 토대를 확고히 함으로써 여학생운동을 구국운동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신념속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혁운동의 주체로 우뚝 서기위해 정치정세, 학내정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사상적 측면에서 자기 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끊임없이 조사 연구함으로써 자기분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확신과 신념속에서 여학우 대중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성해방의 토대, 간부혁신을 위한 생활총화를 제안한다.』

생활총화의 비판과 관점과 자세

1. 생활총화와 비판의 시간이 즐겁고 유쾌한가?

동지의 잘못이 동지를 파괴하고 동지가 책임지고 있는 대중의 고통을 연장시킨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생활총화와 비판은 생활과 사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자기 스스로의 겸허한 비판을 전제로 하는가?

자신의 잘못은 접어두고 다른 이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철저한 자기 성찰만이 다른 이의 자기 성찰을 가져 올 수 있다.

3. 비판은 비판의 시간에만 얽매는가?

조건과 실정에 맞는 비판의 형식과 내용으로 비판은 일상화 되어야 한다. 비판의 유보는 구체성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주지 못해 애초의 비판 평가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비판은 일상적인 평가요, 반성, 조언, 충고이며 상호에 대한 교양이고 모범으로 설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비판의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판은 친근한 방법으로 일상적이어야 한다.

4. 비판이 형식화되지 않나?

비판은 사람사업이고 새로운 인간으로의 개조, 교양사업이다. 비판의 내용은 생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어야 하며 대중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 동지의 사랑, 애정이 전제되었는가?

잘못의 지적 후에는 동지에 대한 끈질긴 애정과 관심으로 잘못의 근원을 파헤치고 교양, 설복해야 하며 동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동지의 감정과 정서를 충실히 이해하는 기초위에 적절한 방식으로 비판해야 한다.

여학우와 동지에게 외면 받기 쉬우며 여학생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충여를 분열시켜 공중분해시키기 쉬운 간부의 모습.

1.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 전체 일에 지연을 주어 다른 간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간부.
2.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간부
3.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과시하는 간부
4. 각급의 이해와 요구를 통일 조직화로 실현하지 못하고 일만 벌리고 성과를 남기지 못하는 간부
5.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인 간부
6. 사업상의 이견을 실천의 공간에서 올바르게 수렴치 못하는 간부
7. 학우나 다른 간부에게 사업을 적절히 배분치 못하여 다른 이들이 할일이 없도록 만드는 간부
8.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올려 동료들 부담스럽게 하는 간부
9. 비판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모든 사업에 완벽해 보이려는 간부
10. 항상 서두르는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간부
11. 하루종일 빈둥거리며 자기 일을 찾지 못하거나 끝없이 게겨서 다른 바쁜이의 속을 상하게 하는 간부
12. 얼마나 잘, 열심히 일을 성과적으로 마치느냐를 기준에 두고 끝없이 고민하는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놀까를 고민하는 간부

13. 자기 부서나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전체를 총괄하지 못하고 사업이나 생활의 일체감을 가져오지 못하는 간부
14. 지도자는, 끊임없이 내용 고민과 단위실정 파악, 지도, 전체를 총괄 지도해 내는 일을 해야하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담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실무를 분담하게끔 하거나, 집행부에게 종부리듯이 하는 지도의 관점이 없는 간부
15. 내부의 문제를 자신과 인간관계가 좋은 다른 사람에게 푸는 간부
16. 옆에 있는 간부를 개보듯이 무관심한 간부
17. 고민하지 않는 간부
18. 공부하지 않는 간부
19. 패배적 관점으로 문제제기는 많으나 대안과 결의가 없는 간부
20. 연애문제를 올바로 풀지 못해 집단생활에 피해를 주는 간부

이 내용들을 틀거리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봅시다.

양애리사건 어떻게 바라 보고 투쟁할 것 인가?

양애리 사건을 간부들과 공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다. 지금의 정세 속에서 양애리 사건을 전면화 시키는 것이 맞는가? 또는 사건에 대한 선전은 내겠는데 이후에 어떻게 이 사건을 전개 시키고 투쟁할 것인지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한다.

또한 정세 속에서 양애리 사건을 반-김에 방향성을 맞추는데 있어서 이 사건이 타당한가 라는 논의가 분분하다. 이렇듯 간부들조차 명확한 관점 정립이 되지 않아 힘있게 양애리 사건을 학우들과 풀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간부들의 관점의 혼란은 반-김영삼 투쟁의 깊은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함이며 장기적 관점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수입 개방 반대 투쟁의 정세 속에서 부문운동으로서 여학운의 자기 자리 매김과 자기 내용으로의 반-미, 반-김의 주체 역량 강화, 여학운의 조직적 역량 강화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결코 양 애리 사건은 선전 만으로 그치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먼저 간부들로부터의 양애리 사건 관점 확립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투쟁을 풀어 내고 학우들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

▷ 양 애리 사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여학우에 대한 사랑

여학생회는 식민지 여대생으로서의 처지와 조건에서 당하는 어떠한 착취와 억압에 있어서 우리 여학우의 문제는 끝까지 공동의 연대 투쟁으로 책임진다.

2)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가정 폭력의 문제이다.

- 3) 허구적인 성. 특. 법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4) 언론이나 사회속에서 그릇되게 유포되는 여성 문제에 대한 여학운의 자기 논리와 전망을 세우는 계기이다.
- 5) 여. 학. 운이 단순한 옛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건설의 토대를 닦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
- 6) 김영삼 정권의 반 여성적 반 민족적 행태를 폭로, 규탄한다.

▷ 투쟁을 어떻게 풀이 나갈 것인가?

1. 9월 정기 국회때 성특법 개정까지의 장기적 전망을 바라 보자.
2. 의식화에 있어서 논리 재구성이 필요하다.
3. 여성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여학운의 난점인 논리 재구성에 있어 내용성을 담보하고 여성 운동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전의 과제의 토대를 닦는다.
4. 각과 여. 연의 연구 토론을 통한 여연 본연의 임무인 내용적 토대를 쌓아가는 여연의 전망을 내어 온다.
5. 대중 공간을 최대한 이용한다. (출범식, 대동제등등...)

▷ 시기별 투쟁 지침

4월-5월 중순

- ♣ 간부 조직화, 가정 폭력,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여성 문제 인식과 양애리 사건을 바라보는데 있어 관점을 확립하고 대학우 선전 의식화 작업과 함께 탄원서 조직화작업을 벌여 낸다. 선전 의식화 내용에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한다.
애리를 무죄 석방하라. 성특법 개정(가정폭력에 대한 조항 포함) 확대하라
- ♣ 중앙운위의 탄원서 조직화 및 공개를 통한 여학생회의 책임성 부각

5월말

♣ 2차 의식화 작업(반여성적, 반민족적 영삼 반대, 가정폭력 방기하는 영삼반대, 허구적인 성특법 개정의사없는 영삼반대)과 함께 대동제를 이용한 애리 구명 서명 작업 및 공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및 물품 판매

♣ 공판조직화를 통한 공판투쟁의 집단적 참가

6~7월: 양애리 투쟁 1차총화--실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보다 높은 내용의 의식화, 조직화 내용 필요, 법적 제도적 장치 요구, 가정폭력의 본질과 김영삼 정권의 허구적인 성특법 제정에 대한 선전, 성특법 개정 확대 준비

8월

♣ 범대회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주한미군 범죄선전, 한반도 성폭력 주범 주한미군 철수, 한미 행협 개정 등 의식화 작업

9월

♣ 정기국회를 바라보면서 성특법개정 연대사업

10~11월

♣ 성특법 개정확대, 총력투쟁

여학생운동은 자민통의 과제와 함께 여성운동의 선봉대의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는다. 자민통의 본궤도 진입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함께 여학생운동 또한 이제 본궤도로 진입할 때이다.

양애리 사건을 단순히 동정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성특법 개정이라는 이시대 여성운동의 과제의 연장선상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학우들을 만나야 한다.

아무리 수입개방 저지 투쟁을 힘있게 풀어낸다 하더라도 여학운 본래의 임무를 방기함은 결코 이시대가 부여한 여학운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반미, 반김 투쟁에 있어서 자기의 내용으로 본질을

파헤치고 반여성적 작태를 폭로 규탄함과 골간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기본 역량의 강화가 우리 본연의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흔들림없는 여학운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으로 조국을 해방하고 여성 해방의 한길로 달려가는 여학간부님들을 사랑합니다.

자주의옥토

제5기 대 / 경 / 여 / 대 / 령

㉠ 4만 자주여성과 함께 자주의옥토 제5기 대/경/여/대/협
해오름을 힘차게 알립니다. ㉠

@일시: 갑오 농민 전쟁 100주년 5월 6일 늦은 6시

@장소: 경북 대학교

****위상**

4만 자주 여성이 여성 자주화 사상으로의 단결로 조국 해방과 여성 해방 투쟁을 결의하고, 대경 여대협을 중심으로 94년 여학생 운동의 본궤도 전개를 선포하는 장이다.

****의의**

첫째, 대경 여대협으로의 단결을 높여 지도와 단결의 구심인 의장님을 대중적으로 웅립하며 제5기 대경 여대협을 힘있게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대경 여대협의 총노선을 4만 자주 여성과 94년 여학생 운동의 방향을 공유, 결의하는 장이다.

장이다.

셋째, 대경 여대협을 4만의 조직으로, 여학우 대중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자리이다.

넷째, 4만이 양 애리 투쟁을 함께 결의하는 장이다.

다섯째, 여학생회 단위로 진행된 상반기 사업을 총화하고 힘있게 각 단위 진행될 사업을 결의하는 장이다.

****목표**

1. 4만이 여성 자주화 사상을 합의해야 한다.
2. 각급 여학생회 단위의 대경 여대협으로의 단결을 높여내고 강화를 실현한다.
3. 대경 총련 15만 학우에게 부계 조직으로서의 대경 여대협의 이해를 드높인다.
4. 새내기 조직화를 실현한다.
5. 양 애리 사건을 15만 학우에게 올바르게 알려내고 투쟁을 결의한다.

성폭력에 대하여

“김부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김보은 징역 3, 집행유예 5년”

“김진관 징역 5년”

그들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법적으로는 가해자이나 우리들이 아는 이들은 분명 오랜세월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이다. 항상 성폭력은 행한 사람도 가해자요, 당한 사람도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해자가 되어왔다. 양애리 학우는 또 어떤가? 도대체 성폭력이 무엇이길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두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겁나서 여자는 쳐다보지도 못하겠네’라는 떨뜨름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위협은 곳곳에 존재한다.

마지막 하나까지 뿌리뽑아야 할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고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강간 뿐 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컴퓨터 게임등) 제작 판매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또한 음란한 말이나 몸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이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언어폭력이나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성폭력이 워낙 일상화된 때문이다.

성폭력 신고율이 발생률의 2.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단 접어두고 검찰집계를 한번 살펴보자. 검찰집계에 의하면 80년에 연간 5천6백 14건이던 강간범죄가 89년에 6천4백건, 90년에 7천3백22건, 92년 1월부

터 3월까지 석달동안 중요범죄의 발생건수는 91년 같은 기간보다 2%나 감소했으나 강간범죄나 성폭력범죄는 12.3%나 증가했다. 1989년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실제 강간 발생건수를 추산해보면 한해동안 32만건, 하루에 877건, 1시간에 37건, 그리고 3분에 2건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9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젠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성폭력사건은 흥미꺼리 이상이 안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폭력 발생률 3위이며 강간발생률이 1위라는 사실이 일상화된 성폭력을 너무나 잘 대변해준다.

때문에 성폭력이 항상 내 곁에 있음에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니 직접적인 강간이 아니고는 성폭력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강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추행이나 성적희롱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300여명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2%가 가벼운 추행을 당한적이 있으며 심한 추행은 23.7%, 성적희롱은 48.6%, 성기노출은 74.5%, 강간미수는 14.1%, 강간은 7.7%의 여성들이 당한적이 있고 6.5%의 여성들이 어린이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은 일생동안 살아가는 동안 한번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강간이건 추행이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에 떨며 남자들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한다. 그리고 심한 좌절과 우울, 불안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가진다.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또한 강간을 당했을 시는 강간을 순결상실과 동일시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불결하다고 생각하며 오랜동안 고통을 받는다. 신체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경우 자신이 불결하다고 느껴 자신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강간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의 12%가 임신, 10%가 상해, 1.3%가 성병감염 등의 신체적 피해를 당한다. 또한 성폭력의 충격과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주의에 알리겠다는 가해자의 압박과 돈요구에 의해 연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협박이나 사내 소문에 의해 피해여성이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여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강간, 추행, 성적희롱, 강간미수, 성기노출, 그리고 성상품화 - 성상품화는 성폭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여성을 인간으로서 인식하기보다 성의 도구로 인식하게 한다. -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때문이다.

잘못된 인식의 몇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 ①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 ② 성폭력은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 ③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때문이다.
- ④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언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⑤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 ⑥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성관계이다.
- ⑦ 여자들은 은근히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 ⑧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⑨ 부부간에 강간은 불가능하다.
- ⑩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 ⑪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 생각인가는 실례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 성폭력의 원인

1)제국주의가 성폭력의 원인이다.

일제시대에는 정신대로 우리 여성들을 빼앗겼고 미제가 들어온 후로는 미군들에 의해서 우리 여성들을 빼앗겼다. 차마 눈 뜨고 보기어려웠던 윤금이씨의 시신... 기지촌여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제가 이땅에 저지른 성폭력은 엄청나다. 가까이서 철곡에서 저질러졌던 국민학생 성폭행까지.

20세기 일제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퇴폐적인 성문화를 유포했다. 1900년대초 일본은 일본인 매춘여성과 포주를 다수 유입했다. 일본인 매춘여성들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 관리,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퇴폐적인 성문화를 퍼뜨렸고 일본인 포주들은 굶주린 조선여성들을 사들였다. 1916년 드디어는 '유곽업 창기 취제 규정'이라는 법을 만들어 합법화하였다. 이때부터 매춘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인신매매가 직업적 또는 기업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37-45년동안 공식적인 법령으로 우리의 딸들을 정신대로 끌고갔다.

이는 우민화정책으로 식민지를 쉽게 다스리려는 의도였다. 식민지 민중들이 아예 민족해방투쟁에 나서지 못하게끔 문화마저 바꿔버리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창씨개명, 신사참배, 조선어 사용금지정책을 쓰면서 조선인들을 일본인 생활에 적응시켜 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을 갖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일본이 썼던 퇴폐적 성문화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조선의 참혹한 현실이 아닌 개인적 성욕에 관심을 돌리면 지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이땅에 들어온 미제는 숭미사상과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일제와 마찬가지로 퇴폐적인 성문화를 유포했다. 군사, 경제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생산함으로써 더욱 개인주의와 퇴폐적인 성문화를 양산하였다.

주한미군주둔으로 하여 기지촌의 무고한 여성들을 살인 폭행하는 일들이 거의 매일처럼 일어났고, 그들에게는 마약복용이 종종 강요되었으며 AIDS가 퍼져나갔고 향락퇴폐업소가 줄을 이었으며 주한미군을 통해 음란 잡지와 게임이 유포되어왔다. 경제적인 파행이 계속되며 악덕기업의 사장과 재무부, 청와대의 관리가 함께 사업을 구상하는 곳, 혹은 기업의 노무관리부장과 안기부관리, 경찰서장이 함께 노조파괴를 업무하는 곳이 다름아닌 예외의 향락업소이다. 회사마다 술상무라는 직책이 있는 것, 접대비가 외국의 백배에 달하는 이유가 식민지 경제의 파행성에 있다. 85년에 3만개의 기업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4천48억에 이르고 87년에는 6천7백억에 달한다는 공식보고가 이를 말해준다.

2) 비정상적인 경제성장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성폭력의 원인이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피하면서 정부는 특정재벌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했다. 게다가 경기불황 및 각종 투기사업에 의한 불로소득의 증가로 졸부들을 양산하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졸부들은 단기간의 높은 이윤이 보장되고 투자 가치가 확실한 향락산업에 집중투자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하고 대상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성적 자극과 외설이 상품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우리 생활전반에 침투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 소비와 사치로 왜곡된 성의식을 수용하게 된 것이 오늘날 성폭력을 만연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성차별과 성이중운리가 성폭력의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힘과 용기를 덕목으로 출세를 최고의 목표로 삼으며 사회적인 일을 함으로써 생계부양자가 된다. 한편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와 순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고 결혼이 인생의 목표이며 가정

에 묶여 생계의존자로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상당히 바뀌어져가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사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갖게 되며 이것은 성관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남성이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도 용기 있고 남성다운 행동으로 여겨지거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성폭력을 부추긴다.

4) 향락퇴폐문화가 성폭력을 부추긴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이다. 이윤이라는 것이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은 어떤일도 자행한다. 여기서 여성의 성이 예외일수 없다. 더우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최대 이윤확보를 위해 실업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며 더구나 구조적으로 여성의 노동력은 낮은 임금을 받게 되어있어 여성들을 쉽게 성의 놀이개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다. 룸살롱, 카페, 요정, 퇴폐이발소, 터키탕, 러브호텔등의 향락업소는 전국 45만개로 추정되며 이들의 매출액은 연4조원에 달한다. 또한 한국의 20대 여성중 5명당 한 명이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향락 퇴폐문화는 성상품화와 맞물려 퇴폐적, 변태적, 폭력적 성행위와 성폭력을 부추긴다.

5) 성교육의 부재 또한 성폭력의 원인이다.

성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체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혹은 단순히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전달로 그친다. 또한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남성에게는 성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할것을 가르침으로서 성에 대한 이중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인식은 자극적인 내용을 접했을때 쉽게 여성을 성적공격의 대상으로 보게 한다.

3. 성폭력 추방을 위해

미제국주의로 인한 미군주둔과 경제적 파행성을 당장 막을수는 없더라도 제국주의 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 핵무기 반대투쟁과 미군철수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내고 법적으로는 한미행정법을 개정하여 종속적 위치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매판자본을 척결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

1) 정치경제의 민주화이다.

모든 사회성원에게 적절한 교육과 취업기회, 의식주, 의료문제 등을 향상보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부의 편중, 정경 유착등을 통한 부의 축적을 뿌리뽑아 퇴폐, 향락산업을 규제하고 여성은 정당한 노동력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2) 올바른 법규정과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성특법)은 몇가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① 여성의 정조 유린 여부만을 보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그동안 여성계는 사회적 폭력인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죄 또는 성적자유의사침해의 죄로 반드시 새롭게 규정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전혀 개념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를 적용하고 있다.

② 부분적으로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친고죄가 존재하고 있다.

③ 성폭력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행동여부(얼마나 반항했는가 내지 먼저 유혹하지 않았나 하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④ 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성희롱해위에 대한 규제, 비동의간음죄가 배제 되어 있다.

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있어서 동료에 의한 성폭력행동이 배제되어 있거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⑥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조치가 미흡하다.

⑦ 법집행과정,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설치 및 운영, 국가의 책무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성폭력특별위원회'와 같은 책임적인 기관이 배제되어 있다.

⑧ 가정내에서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 강간당하는 '부부강간'에 대한 내용이 국민의 인식부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우리 여성의 힘으로 올바른 법제정과 실행을 이루어내자.

3) 향락산업의 척결로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를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향락퇴폐업소의 영업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음란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4) 그릇된 성문화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유해환경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회의, 특별활동, 교내방송, 강연, VTR, 영화관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성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속에 성문제에 대한 상담 및 성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순한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 전달이나 순결교육의 차원에서 벗어나 성차별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

4. 성폭력추방운동의 평가

김부남사건, 보은 진관사건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에 많은 이의 관심이 모아졌었고 성폭력의 제도적인 대안책으로 성특별제정의 필요성과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었다. 여성단체들과 전국의 여학우들의 힘찬 투쟁으로 이제 미흡하나마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고 성폭력의 심각성은 대중적인 인식확산을 이루어내었다. 또한 성폭력추방사업은 굳게 틀어쥐고 나가야할 여학생회의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윤금이씨 투쟁을, 그리고 올바른 성특별제정투쟁을 해나가면서 성폭력의 문제는 계기적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될것임을 알았고, 이는 학우들에게 있어 성에 대한 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의식화 작업에서부터 성폭력을 추방해내는데 학우들과 함께 실천할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내오는 데까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투쟁의 내용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기간의 많은 성과들을 소중히 받아안으며 학우들과 함께 실천하고 바꾸어 나가는 성폭력추방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자.

1) 주한미군 철수투쟁

여학생회단위에서 성폭력의 주원인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오래되었으나 대중적인 공감대와 대중적인 실천의 양태를 띄게 된것은 윤금이씨 사건이 그 계기였다. 기지촌 여성의 죽음을 통해 구체적인 성폭력의 주범으로써 주한미군의 반대를 외침으로써 성폭력문제의 본질이 제국주의, 특히 미국과 땀해야 땀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진것을 선전의식화해 나갈 수 있었다. 이 투쟁은 이 후 어떤 사안에 따른 계기적 투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 투쟁의 한 과제로 여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2) 성의식 설문조사, 성교육

경대에서 작년 진행되었던 성의식 설문조사를 잠시 보자.

연애하는 사이는 성관계등 관계의 제한을 들 수 없다. 26%
여학우들중 피임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40%

작년 경대혜서 진행되었던 성의식 설문조사의 부분이다.
요즘 학우들의 성의식은 많이 개방적으로 바졌으며 이는 여학우들에게
도 자기의 성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의식이 고양되었음을 나타낸
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성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부족함을 알수있
다.

학내 성폭력의 원인을 여학우의 옷차림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
직도 상당히 많은 등 곳곳에서 성교육의 부재와 그릇된 성의식이 드러
난다. 여학생회가 학우들의 성의식을 파악해가고 올바른 성의식 확산
을 위해 노력하며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3)성폭력특별법의 개정과 실효성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특법은 많은 노력들로 이루어진것이나
앞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듯이 모법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가
기 위해 계속적인 후속작업과 법개정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며 또한 제
대로 실행될수 있도록 여학우의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4)학우들과 함께 실천적으로 풀어낼 사업을 창의적으로...

몇대학에서 경험이 있는 물같이 투쟁이란 생활주변, 학교주변에서부터
성폭력문화를 추방하고자 제기되었던 것으로 학우들이 실천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서명작업, 업소의 야한 사진철거작업등을 벌여내었다. 성폭
력추방운동이 실제 선전의식화중심의 선언적 투쟁에서 학우들고 실천적
으로 그 해결의지를 모아간다는 점에서 한단계 발전한 모습이라하겠다.

여성의 직, 성폭력.

창의적으로 실천적으로 성폭력 추방운동을 풀어갑시다.



통일 조국 건설!

여학우기 앞장섭니다. 

1. 들어가며

우리사회의 가장 큰 모순을 분단모순이라 한다. 여학생회 일꾼들은 일찍부터 여성의 자주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분단에 있다고 보고 여학우들이 앞장서서 할수 있는 조국통일의 내용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학생운동이 조통투쟁에 복무해야한다는 당위만을 앞세워 조국통일과 여학우들의 삶에 대한 해명작업이 부족하였고 여학우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조국통일 사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89년 민족통일 여학생단의 조직에서부터 92년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의 구성, 그리고 93년 성폭력의 주범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이르기까지 분단에 의해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여학생운동 일꾼들은 선봉에서 투쟁하였고 이러한 투쟁의 과정속에서 분단과 여성의 삶, 이를 위한 여학우들의 역할이 하나씩 해명되기 시작하였다. 성과를 바탕으로 94년 여학생회 조국통일 투쟁의 전망을 밝혀내어오자.

2. 여성에게 분단의 의미는...

분단은 우리 민족의 삶 곳곳에 험한 생채기를 남겼다. 우리 사회 어디에나 그어져 있는 3.8선. 이 분단의 선은 과연 여성들, 특히 여대생인 우리들의 삶 어디에 그어져 있을까?

600만이 죽고 다치고 천만가족이 헤어지게 된 분단과 전쟁. 수많은 여성들이 그 틈바구니에 끼여 군인에게 강간당하고 폭행당했다. 그 서러움을 안고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고 팔다리 잘린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다. 그 가운데 많은 여성들은 이산과 부상의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매춘의 거리로 나서야 했다. 심지어 미군을 따라 평양까지 진격(!)하기도 한 기지촌 여성들이 바로 이 분단과 전쟁으로 생겨났다.

아직까지 분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첫째로, 분단은 독재를 유지시키고 사회민주 발전을 막아왔다.

국가보안법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제도가 생겨나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성고문이 저질러졌다. 또 자그

마한 민주적인 요구도 좌경시되고 억눌려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차별 해결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5년 전두환정권이 동두천 지역에 투여한 50억원의 대부분이 동두천 기지촌 주변의 퇴폐사업에 쓰였다는 것은 이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우리가 치루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얼마나 크며 이 고통이 자주적이지 못한 정부 때문에 얼마나 조장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한다.

만약 해방 이후 여성들의 활발했던 운동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들이 부딪쳐야 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의 모습, 침묵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은 꽤나 달라져 있지 않을까?

둘째로, 분단은 미군이 한국군 작전지휘, 통제권을 다 가지고 이땅 전역에 주둔하는 명분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주한미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갖가지 피해를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였다.

미군으로부터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던 수많은 윤금이 누이가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들 옆에 있고 미군이 퍼뜨려 놓은 향락문화가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에게 안보를 구걸하는 정부정책 속에서 많은 민중들이 지역개발을 저해받는 등 피해를 받고 절도, 폭행등 미군범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미군과 매매춘관계를 맺는 기지촌 여성들이다.

일제시대에 20여만명 조선처녀들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하루에 100명 까지도 일본군을 상대하면서 이땅의 굶주림과 성병으로 끝내는 몰살되어 죽어가야 했듯이 민족이 외세에 침탈을 당하면 이땅의 여성들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들은 다시 우리 민족 여성들의 성을 침탈했다. 120개 기지, 4만5천명의 미군, 그 주변에는 역시 4~50만에 이르는 기지촌 여성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팀스피리트훈련기간 동안 미군 훈련장소를 쫓아 포주에게 끌려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하루에 10여명씩이나 되는 미군들을 상대해야하는 『이 시대의 정신대』이다.

세째로, 분단은 미.일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냈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돌렸다.

여성들이 당해야만하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저임금, 여대생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여대생 취업차별등이 다 이런 원인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경제공동체를 이루던 남북이 갈라지게 되자, 남북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남한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해나갔나 보자.

「적산불하」, 「원조」, 「차관」 이것이 5~60년대 우리나라 자본공급원이었다. 일본이 나가자 우리 자체 기술로는 알코올 한방울 만들 수 없던 상황에서 모든 기술은 아무리 하찮더라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비싼 로얄티가 붙은 채로 이땅에 들어왔다. 보리고개에 시달리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국내 수요는 적을 수 밖에 없고 모든 상품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덤핑용으로 만들어졌다. 기업주들은 자체 기술발전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땅투기를 일삼고 정권은 기업주로부터 정치자금을 챙기는 상황에서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땀위에서 값싼 수출품이 만들어졌다.

GNP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자본, 기술, 시장 모든면에서 예측적이고 내실없는 경제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체 노동자의 30%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심하다. 여성노동자의 50%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대국들이 시장개방 압력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의 대량 감원, 해고를 불러오고, 이것은 또 저임금을 끌고 온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서열 제 1위는 여성노동자이다. 앞서 말한 매매춘 여성들 역시 그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다. 해마다 취업의 문은 좁아지는데 대졸여성들에게는 바늘구멍 만하게 된지 이미 오래다.

내제로, 분단은 퇴폐향락문화가 마구 들어오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우리 여대생들은 퇴폐향락문화라면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분단이후 「미국은 좋은 나라」라는 의식이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미국의 퇴폐향락문화도 우리 생활속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과 AFKN의 영향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에 직접 미국문화를 전파하는 기지역할을 한 것이다.

퇴폐향락문화가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만들어 내면서 우리사회에는 매매춘과 성폭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세계 3위의 성폭력 왕국. 그 증가는 거의 세계 1위에 이르고 있다. 여대생의 90% 이상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학교안에서도 강간이 자주 일어날 정도가 되었다.

120만에 이르는 매매춘 여성들은 우리사회의 예측적 정치, 경제구조, 문화실태가 만들어낸 피해자들이다. 가난해서, 강간당해서, 인신매매당해서. 이것이 매매춘을 하게되는 이유이다.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이 매매춘을 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준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기지촌 여성이 생겨나는 세상도 바로 이 세상이다

다. 이세상이 만들어낸 여성들의 삶이 결코 우리 여대생을 비껴가지는 않는다.

3. 94년 조통투쟁의 기초

이념의 대립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침해를 받지 않는 조건에서 세계평화를 바라는 국제적인 탈냉전의 흐름과 분단50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통일주체의 의지가 나날이 높아만 가는 94-95년의 시기에서 조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청년학생의 힘찬 조국통일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개방과 남북대화에 있어서 김영삼정권에 대한 전국민의 불만은 높아가고 한반도에 '무기의 그늘'을 드리우고자 하는 미제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때 반미자주화 투쟁과 조국통일 투쟁은 어느때보다 큰 위치를 가진다.

민족자주의 문제는 통일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이며 통일조국에서도 여전히 견결히 지켜져야 할 전략적 과제이다. 단위국가와 민족의 존립에 기본이 되는 것도 자주이며, 자주없이 민주없듯 사대적 굴종의식과 종속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조국통일의 길도 그만큼 요원해지는 까닭이다. 이에 분단의 원흉이며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적인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제의 대한반도 전략의 기본은 호혜평등에 근거한 동반관계가 아닌 정치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일관된 지배전략이다. 그 지배전략의 최종목표는 전한반도 지배이며, 현실에서는 동북아에서의 끊임없는 긴장의 유지와 격화를 통해 이남만이라도 확실히 지배하고자 하는 정책을 선택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근거도 없이 이북의 핵문제를 갖고 떠들어 대는 이유도 한반도분단과 무기판매에 대한 절실한 이해관계에서 나온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이남민중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쌀개방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도 한반도의 농업을 말살시켜 전한반도에서의 지배권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는 포석에 다름아니다. 반미가 자연스러운 국민의 정서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반미의 관점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통일 방안을 합의 해들어가야 한다.

연방제의 정신은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의 대원칙에서 나온 유일한 통일방도의 정신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흡수통일을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과 북의 민중들이 선택할수 있는 통일방안은 유일하게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는 연방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통일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나 재산에 대한 걱정, 또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기초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는 연방제의 내용과 정신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주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그 정당성과 구체성으로 7천만겨레가 합의해 들어가야 할때이다.

‘민족대단결의 해’를 이룰때이다.

아무하고나 무조건적인 단결이 아닌 통일운동의 원칙과 대의에 입각한 단결,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대단결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올해는 범민련에서 남북해외의 합의로 ‘민족대단결의 해’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해이다. 이는 조국통일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의 과제로 받아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의 과제로 받아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대장정에서 동포의 손을 굳세게 잡고 나가자 하는 민족의 의지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놓이는 과제는, 민족대단결의식을 전국민에게로 확산시켜 내며 그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여학우들 스스로도 분단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성의 고통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주동적으로 앞장서 시작해 나가야 한다.

반미투쟁의 일상화, 전면화를 내와야 한다. 이미 폭넓게 이루어진 반미의 인식을 기반으로 미제에 대한 총체적, 구조적, 본질적, 인식과 강고한 대립전선의 확보를 이루어내어야 한다. 특히 왜곡된 여성의 모습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한반도 군사기지화의 속셈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있어서 여학우의 단결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지촌에 대한 조사작업을 시작으로 연대의 내용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여성공동이 통일주체역량으로 자리잡기위해 남북여성간의 교류와 협력의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4. 주한미군 철수 투쟁

1) 미군범죄 사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함을 다시한번 생생히 느꼈던 윤금이씨의 죽음!

우리나라에서는 미군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행사한 것이 겨우 0.7%에 불과하고 설사 재판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정하게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 다반사였다. 전체 면적이 서울의 절반크기가 된다는 180여 개의 미군기지 즉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군산, 왜관, 송정리, 대구, 송탄 등을 중심으로 약 100만의 매춘 여성이 분포되어있고, 이들은 대부분 변태적 성폭행이나 화대에 대한 시비, 또는 마약등 강제 약물 투입등으로 죽어갔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강도, 폭력, 마약, 밀수 등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침탈의 예를 들어보자.

■ 65년, 7시단 예리 노페스 이등병은 등기중이던 신머령씨를 식도로 위협 "사랑의 증기로 머리를 깎겠다."며 신씨의 머리카락을 모두 질렀다.

■ 68년, 동두천 양공주촌에 미7시단 CID 허빈스 상병 등 3명이 윤순지씨 등 새명의 양공주를 찾아와 한방에서 함께 질것을 요구했으나 혼음을 거부하자 권총으로 위협했다.

■ 68년 9월, 기린때문에 열한살에 집을 나와 양공주가 된 대구의 손남숙 양은 사귀던 미군 채리를 만나러 간다고 나섰다가 부산진역에 버려진 미군용 백속에서 심하게 썩은 시체로 나타났다. 채리리는 미군을 추직했지만 미군 당국은 "채리로 불렸던 공군사병등 4명은 68년 6-9월 사이에 월남으로 진출했다."고만 일릴 뿐이었다.

■ 70년 7월, 용신 기지 영내에서 10세밖에 안된 어린 소녀 박모양이 무려 8명의 미8군 소속 미군에게 운간을 당하였다.

■ 팀스피리트 훈련중 충북 봉양 국민학교 교사 이모씨는 임신 6개월 중에 미25시단 병사 6명에게 집단 운간을 당하였다.

■ 92년 7월달에는 김모양이 미군 병사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캐진 맥주병으로 지궁을 찔렸다.

기가 막히게도 윤금이씨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범죄는 저질러졌다.

■ 한국에 첫진입하여 미군지정 호텔에 묵고 있던 미군 실로이 존 로저에 의해 호프집 주인인 김국혜(51)씨가 일곱달 일해보지 못할 정도로 머리 빠기 피손대 출혈이 심하고 하의 속옷이 빗겨진 채로 발견되었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주는것은 범죄자 미군에 대한 처벌과정과 결과에서이다. 재판중 구금상태에서도 미군 당국의 묵인 아래 자유롭게 외출해 증인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그나마 처벌당하는 것이 불명예 제대나 본국으로 송환되는것이고 수감되더라도 감방은 4.5평의 넓이에 하얀 시트덮인 침대에 꽃까지 곁들인 책상, 서랍이 있는 철재 캐비닛이 마련되어 있고 56평 넓이의 부속건물에는 냉장고를 갖춘 취사장과 식당, 목욕탕 심지어 오락실까지 있는 호텔이다. 이들은 식사도 교도서가 아닌 안양 미38군 기대내에서 제공하는 배려까지 받는다. 바

로 우리들의 투쟁으로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오히려 마클이 항소를 하는 우스운 꼴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독립국의 필수 조건이 「자주국방」이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터인데도 왜 미군을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

2) 주한미군 범죄의 성격과 배경

미군은 한국에 첫발을 디디면서부터 피를 묻고왔고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67년부터 87년까지 총 37,452건의 미군범죄를 저질러왔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미군의 수는 무려 45,183명에 달한다. 또한 92년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 법무부 자료에서는 91년 1월에 주둔군 지원협정이 개정된 이후 주한 미군 범죄자는 1,197명이었고 그중 9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범죄자는 521명이라고 밝혔다. 하루에 평균 5명, 일년에 2천명에 이르는 한국민이 미군에게 상처입어 왔다.

그러면 이러한 미군범죄의 잔혹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미군병사 한사람 한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잔혹한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주한 미군들 대부분이 사회하층이고 저질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 민족과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면, 미군 병사의 범죄는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군사경제 활성화, 대외 영향력 강화등을 위해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공산주의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그 전쟁에 내세웠다. 실제로 제일 전방인 동두천, 파주, 의정부에 주둔하고 전쟁시 가장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끔 매년 전쟁연습에 동원되며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이라는 부대표어를 갖고 있는 미2사단의 병사들은 이복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미군은 이렇게 교육된 병사들을 동원하여 한국전쟁에서 처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전술로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미군들에게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기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을 써도 된다는 것을 실전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폭력을 우리 민족에게 사용할 것이 보장되는 현실이니 미군범죄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범죄가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역사적인 원인은 바로 분단과 전쟁이다. 분단이 미국에 의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 졌는데도 이복을 적으로 들리는 분단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합리화한다. 북

한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전쟁연습자체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병사들에게 무자비한 살상을 교육하는 미군에게 안보를 구걸하고 있는 한, 우리 정부는 윤금이씨 사건처럼 미군병사 개인 범죄처리에 있어서도 항상 굴욕적인 자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는데 범죄가 만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분단은 주한 미군범죄가 생겨나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식민지의 현실, 한미행정협정

한미행정협정은 한반도가 미군의 범죄 천국화된 하나의 원인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예측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법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않아 미군범죄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윤금이씨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 본문 22조 5항 '범죄 혐의자 수사및 구속'

피의자가 미군 관할하에 있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측에서 구금

--수사도 없이 마클이병이 미군에게 넘어가서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마클은 불구속 상태로 미군측에 있을 수 있었다.

▼ 합의 의사록 22조 9항 '피의자 인권보장'

한국 구치소 시설이 미국 요구기준을 충족해야 함

--양변기, 냉장고있는 감방이 없다는 이유로 마클을 구속할수 없었던 것이다.

▼ 본문 22조 7항 '징역형 복역 조항'

범인이 한국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한국에서 복역중일때, 미국이 신병인도요청을 하면 한국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함

--범죄자가 언제든지 미국에 송환, 풀려날 수 있으므로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없게된다.

이밖에도 한국의 재판권을 미국에 넘기게 하는 여러 조건을 두고 있는 것, 한국어와 영어의 해석상 차이가 있으면 영어본을 따르기로 한것 등 불평등한 부분이 많다.

● 주한미군 범죄의 1차적 피해자는 기지촌 여성이다.

기지촌 여성은 주한 미군이 저지르는 강간 폭행 살인의 1차적인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마약과 AIDS, 음란 포르노 유통등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주한 미군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국혜씨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기지촌 여성뿐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수 있다.

주한 미군은 폭행 살인 강간 범죄뿐만 아니라 이따에 향락문화를 확산시키는 '범죄'의 주범이다.

89년 확인된바에 의하면 서울 용산미군 기지 맞은 편 '성조기(미8군 신문)' 보급창구에서 7년 동안 수억원 어치의 음란기구, 음화, 포르노 비디오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지금도 시중에 나도는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음란 서적, 포르노 비디오 대부분이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 한다. 또한 미군기지는 우리 사회에 향락문화를 확산시키는 근거지가 되거 있다. 미8군 팝송이 다음 날이면 강남 유흥가로 흘러나오고, AFKN의 퇴폐적인 프로들이 얼마 후면 우리나라 방송으로 방영된다.

향락문화는 우리사회 모든 여성들, 여대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성폭력의 위협, 누구나 당해본 추행등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향락문화의 영향이다.

5. 기지촌 활동

아직 대구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지촌 활동을 소개한다.

주한미군에 의해 어떠한 보장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하고자 서울 및 경인지역 여대협 중심으로 기지촌 활동을 매해 벌여왔다. 식민지 여성운동의 선봉부대로써 여학생운동은 기층민중 여성과의 연대의 일환으로 이작업을 지속해왔다. 아직 그 활동분야가 기지촌 여성의 삶을 직접 보고 느끼기, 영어 가르쳐 주기, 혼혈아 돌보기 등 협소한 부분에 국한되지만, 조금의 조직적 활동도 진행되고 있지 못한 기지촌에서 주한 미군 반대투쟁의 씨앗을 틔어오는 작은 계기로나마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지촌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를 민족의 문제로 받아안으며 해결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1) 기지촌이란 어떤 곳인가?

기지촌이라고 하면 보통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주지와 상권을 일컫는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울중심부에 자리한 이태원, 동두천, 그 밖에 의정부, 송탄, 군산, 송정리, 부산 등을 들 수 있다. 이곳들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시골이었으나 군사상 중요지역으로 치부되면서 미군기지가 들어와 번성하기 시작하는 도시로 그 지역의 토박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집되어 있어 엄청난 상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상권의 형태가 미군기지에 기생하는 형태로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미군기지가 없어질 경우 그 곳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 기지촌은 그 기생성으로 하여 많은 문제를 내포, 드러내고 있다. 즉 미국의 퇴폐 향락적인 문화가 이 기지촌을 통해 유포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아이들 교육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기지주변에 가장 크게 형성된 매춘여성들의 문제, 이속에서 파생되는 혼혈아 문제, AIDS파급 문제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자리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기지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 또한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기지촌 여성이다.

2) 현대판 정신대--기지촌 여성

일제의 식민지 시절, 우리 한반도는 일제의 세계점령 아육의 발판이었다. 이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속에서 입증된 것이다.

그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천황의 하사품으로 내려진 「정신대」에 끌려가 온갖 치욕스런 일과 죽음까지 직면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지금까지도 이 정신대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우리의 여성들이 왜 그다지도 큰 아픔을 겪었어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자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즉 우리 민중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 물음에 기지촌의 여성들을 떠올린다. 정신대가 일본군인의 전쟁중 성육의 분출구로 깨끗한(?) 한국여성들이 하사(?)되었듯이 지금 기지촌의 여성들이 일반 사창가에서는 진행되지도 않는 성병진료를, 생계수단이 막히지 않기위해서라도 받아야 할 만큼 깨끗한(?) 상태로 미군에게 바쳐져야 한다.

그리고 정신대가 일본군이 움직이는 곳, 어느곳에나 따라갔듯이 지금의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이 훈련하는 곳, 어디든 따라다닌다.

우리는 기지촌 여성들을 보면서 정신대를 생각한다. 미국의 제국주의

를 실현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에게 바쳐진 여성들!

3) 기지촌 문제

여성문제가 집약 집중되어 표출되는 곳이다.

기지촌을 흔히 '모계사회'라고 부른다. 그것은 기지촌을 이루는 사람 대부분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이며 이여성을 통해 사생아인 혼혈아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 혼혈아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으로 기지촌이 메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기지촌에 왜 이다지도 많은 여성들이 들어오는 것이며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대부분 기지촌으로 흘러온 여성은 집안이 어려워 가출을 했다가 직업 소개소에서 사창가나 기지촌으로 인신매매 당한 경우, 강간의 경험으로 이를 이기지 못하고 사창가를 돌다가 기지촌으로 들어오는 경우등 정말 다양하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는 여성 대부분이 우리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첨예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공통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문제를 안고와서 이곳 기지촌에서 더욱 더 그문제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문제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자살한다. 윤금이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은폐된 죽임을 당할것인가는 잘알 수 있다. 그리고 50세에 낙태경험 16번이 될정도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돈 때문에 병원에 진료 한번 못받으러 가는 여성들의 건강으로 많은 여성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자신이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그들은 자살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을 보면서 단순히 여성문제는 여성만이 풀 수 있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진리를 다시 느낀다.

5) 기지촌 활동의 모범

기지촌 활동은 이미 경기지역 여대협이나 서울지역 여대협을 중심으로 기지촌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결합하여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윤금이 씨 사건, 김국혜씨 사건을 접하면서 전국에 퍼져있는 미군기지 주변에 대해 우리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작업과 함께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 사회단체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때인것 같다.

여기에서는 경기지역 여대협의 기지촌 활동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풀어나가야 할 기지촌 문제, 주한 미군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 ① 7월 12일 부터 8월 6일 까지 일주일 단위로 10여명 활동
- ② 활동대원의 주별 일정표

일 : 활동대원 모임 및 교양
 월 : 활동준비, 참사랑 탁아방 시작
 화 : 기지촌 돌아보기, 공부방 시작
 수 : 지역조사 (단체방문), 공부방
 활동
 목 : 지역조사 (실제답사), 아이집

③ 활동내용

㉠ 놀이방, 공부방 활동

기지촌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놀이방, 공부방을 할 때는 아이들과 그저 놀아주고 역할로만 놀이방, 공부방의 의미를 축소해야 안된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야 하고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한다.

또 놀이방, 공부방은 기지촌 지역단체가 기지촌에 자리잡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힘겨워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다. 또한 놀이방,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눈에 비친 기지촌의 현실, 여성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클럽 방문

클럽방문은 기지촌 활동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활동이 된다. 클럽 입구에서 부터 우리는 미군과 여성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낯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클럽에 앉아있는 것도 어색하다. 그러나 클럽방문은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이 클럽안에서 맺는 관계를 직접 볼수 있는 활동이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주변의 클럽은 규모가 적거나 관계없이 '내국인 출입금지' 혹은 '미군 전용클럽'이라는 뜻말이 붙어있다. 내나라 내땅에서 출입을 통제 당하는 것에서부터 의아함을 느끼게 되지만 더욱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국 여성들은 통제없이 혹은 별무리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클럽 방문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지촌 여성을 여대생이라고 느끼며 이질감을 없앨 수 있을 정도로 클럽의 분위기에 어드는 것도 좋다. 그래야 그곳 여성들과 짝막한 이야기라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다. 그곳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언니'라고 부르며 천연덕스럽게 클럽활동에 임해야 한다.

㉢ 미군기지 방문

미군부대 방문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며 실제로 누리고 있는 여러가지 혜택과 그것의 부당함을 잘 볼수 있는 활동이다. 미군기지를 방문할 때는 먼저 그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이며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지를 알고 가야 한다. 동두천 Camp Casey에 한미 야전 사령부가 있고 의정부 Camp Stanly는 휴전선 일대에 핵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헬기 부대이며, 송탄 k-55는 한국군 정부 예측의 중심지이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다. 어떤 곳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두고 그 기지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알면 미국에 대한 군사전략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

또 그 기지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땅을 강제수용한 경우 주민들의 한 맺힌 이야기를 자료로 구해보거나 주민을 직접 만나 보는 것도 괜찮다.

용산기지 이전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이전반대 운동을 하는 평택단체 실무자들과 만나면서 그 운동에서 한 몫을 담당할 부분을 찾아 기질이 끝난 후에도 학우들을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하자.

2 지역조사

먼저 관청에 가서 지역의 지도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게 클럽은 몇개이고 매춘지역은 어떤 곳이 중심이 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매춘여성이 있는가, 그리고 기지를 주변으로 가장 많이 분포한 상가는 어떤 것이며 이 상가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규모는 어떠한가, 미군기지가 어디까지 뻗어있는가도 알아보고 지도로 작성해보면 좋겠다. 이 작업을 하면서 사진찍기 작업도 함께 하자.

둘째로 지역주변의 시민모임이나 민주적 성향을 가진 단체를 알아보자.

셋째로 그 지역의 주민의 생활 실태와 의식을 파악하자. 주민들의 직업, 생활 수준, 교육수준이나 교육시설 부분, 문화수준, 물가, 선거때 성향, 미국에 대한 생각, 미군으로부터 받는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을 활동중에 기지촌 여성, 어머니들에게 듣거나 지역단체를 찾아가서 알아보자.

6) 대구지역 미군기지 현황

대구지역에는 캠프 헨리, 캠프 워크, 캠프 죠지, k-2비행장 이렇게 4개의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위치하게 된 것으로 이중 k-2를 제외한 3개의 부대는 남구53만평 중 6%에 해당하는 30여만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프장만도 27700여평에 해당한다. 미군은 2천6백여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군에 속한 한국인의 6~7천여명에 이르며 한국인 근로자는 천5백여명으로 주한미군 노동조합의 천3백여명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인 노무단으로 2백명이 있는데 고용의 불안정, 노조활동 제한, 부당임금체계, 시설이용의 차별성 등으로 불만이 높다. 현재 각 부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㉔ 캠프 헨리

이천 2동에 위치하고 있고 미 제 19지원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병참기지 업무를 맡고 있다. 58000평을 점유하고 있다.

㉕ 캠프 워키

봉덕 3동과 대명 5,9동에 위치하며 전용주거단지과 A헬기장, 9홀의 골프장이 있다. 223000평을 차지하고 있다.

㉖ 캠프 조지

대명8동에 있으며 교육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19000평이다. 이러한 미군기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생활적 피해를 입고 있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퇴폐양키문화로 성폭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 또한 너무나 크다.

7)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첫시작 기지촌 활동

대구지역에는 미군기지 주변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만과 투쟁은 있어왔지만 실지 기지주변의 기지촌에 대한 인식은 많이 하지 못하였다.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횡행함으로 여학생회 단위에서는 앞장서서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기지촌 활동인 것이다.

아직 기지촌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지역에 뿌리박은 단체도 없지만 지역조사 형태의 작은 시작에서부터 기지촌 활동을 고민해내자.

그리고 이를 통해 학우들과 함께 하는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이끌어내오자.

당장에 지역에서 활동이 어렵다면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축적된 경험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 지역과의 연계활동을 진행해 가며 일단 지역에서의 조사작업부터 시작해 보자. 이러한 우리의 시도는 학우들에게는 실질적인 반미 의식의 고취, 평화 정착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의 조직화하는 과정일 것이다.

윤금이씨 사건으로 주한미군 범죄의 본질이 알려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어왔음이 널리 알려지며 주한미군 범죄 대책위가 꾸려졌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두천 시민과 전국의 여학우가 함께 했던 윤금이씨 사건을 기억하며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실천들을 찾아가자.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대경연합산하에 미군기지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준)(☎ 565-5687)가 활동하고 있다.

연대사업의 꽃, 탁아에 대해서

들어가며

여성과 육아는 떨어질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속에서 육아는 개별적인 것, 가정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별 가정의 불화가 사회로 연결되듯 청소년 범죄의 대다수가 가정적 불화로 인한 것이고 결혼 가정의 자녀, 빈민가정의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속에 방치되고 기혼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업적 탁아(1달에 20-40만원 정도)가 난무하는 요즘 육아의 사회화가 요구되며 이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하고 실제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탁아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탁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의 과제이다. 즉 탁아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3중고(육아, 가사, 생계)에 시달리는 모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인한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 이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야 하고 여학생회는 그배움과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 여학생회 탁아운동의 현실

1) 탁아사업의 관성화 및 질적 팽창 부재

처음 출발의 문제의식 이후의 양적인 발전속에서 탁아사업의 질과 내용 그리고 주체들의 변화발전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자원봉사활동, 후원회모집, 대동제 주점 및 바자회라는 일련의 반복되는 사업이 탁아운동이 아닌 하나의 여학생회 사업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특히 그 소중한 자부, 후원회를 바르게 지도, 관리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길게는 1년을 활동하지 못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회, 직접적인 봉사활동 및 후원회 이외에는 고민되지 못하는 탁아소모임 활동, 매년 반복되는 여학생회 탁아사업...

이 모든 것을 해결해나갈 탁아주체의 부족, 그리고 여학생운동속에서 탁아운동의 위상, 장기적 전망, 내용과 과정의 부재 등등의 많은 해결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다.

2) 탁아운동이란 대의 속에 현재 변화되고 있는 사회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 대구지역위원회(지탁연)」소속 탁아소들이 빈민,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빈민탁아를 시작했으나 국민생활의 전반적 향상과

기업의 기혼여성 인력고용의 확대 등에 의한 탁아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탁연」은 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고 있는 육아의 사회화 실현을 위해 민간탁아소 연대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활동은 아직까지 빈민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복지라는 측면에서 이땅의 모든 부모들을 위해 탁아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하는 대의를 알지 못한다.

3) 자원봉사의 한계

우리정부의 사회복지 수준이 세계 70위라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형태를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민간에서 봉사 내지 희생이라는 부분으로 정책부재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탁아소 지원활동도 단순히 지금 상황에만 머문다면 사회복지관련 노동자들을 착취시키는 자본의 논리에 박자를 맞추는 격이다. 한편 그동안의 「대탁」지원활동이 실제로 탁아소를 책임지는 교사나 운영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눔」, 「민들레」, 「참사랑」, 「달구벌」이 차례대로 문을 닫는 현실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탁아방 방세마련을 위해 힘겹게 재정사업을 하고 「대탁」후원과 자봉활동등에서 많은 소모적인 부분을 극복하며 일을 했지만, 비영리 탁아소의 일상적인 재정난과 증첩된 교사난은 아무도 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탁아소가 문을 닫는 것도 구경만 해야하는 입장이었다.

2. 탁아소모임의 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탁아일꾼들이 탁아활동을 자봉, 후원회로 편협하게 사고함으로 인해 사업의 내용이 풍부하지도 못하고 특히 탁아소모임의 정형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탁아소모임 활동속에 자원봉사, 후원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탁아소모임=자원활동이 되어있고 심지어 소모임은 없고 개개인의 자봉활동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1) 탁아운동에 대한, 학내 탁아사업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고 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지향점이 없어 답습되어 왔던 소모임 활동은 이제 학우들의 변화 발전 및 탁아운동의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탁아소모임의 운영에 있어서 그 내용과 활동방법은 탁아문제연구와 현장활동, 재정 및 후원사업으로 정착하여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닌 모

임구성원들이 자원활동가로 성장하여 이 조직이 탁아운동에 복무하는 명확한 입지를 찾아야 한다.

3) 여학생회는 탁아소모임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하여 그들의 활동공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마련 사업에의 참여, 탁아제정 확보투쟁에의 참여, 대동한마당 등을 통한 학회발표회, 초청강연회등)

3. 후원회 모집은 이렇게 합시다.

1) 여학생회 체계를 통한 후원회 모집

각단대, 과여학생회, 탁아소모임, 여연을 중심으로 대학우 선전, 후원회 모집, 후원금 모금을 함께 진행한다. 총여탁아부장과 단여탁아부장을 주체로 내용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 지침서를 마련하여 기층을 지도해 내야 할것이다.

2) 공개 후원회 모집과 기금마련

중도앞에서 탁아기금마련에 대한 설명, 선전과 함께 직접 후원회를 모집한다. 후원회 모집과 함께 물품판매등을 할수도 있을 것이다.

3) 봉사동아리를 통하여

총동연과의 연계속에서 가능한 동아리에 대해 사업을 진행한다. 동아리 주체와의 만남, 동아리 방문, 설명회, 선전을 통해 후원회를 모아내고 연계 가능한 동아리는 지속적으로 주체를 만나 활동을 공유한다.

4) 교수, 교직원과 함께 하는 탁아사업

작년 경대의 여직원 노조에서 학내 직장탁아소건설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었다. 각 대학의 이러한 요구에 총여가 결합방도를 고민해보고 이와 더불어 교수, 교직원이 후원회로 함께 할 방도를 고민해보자.

4. 재정마련을 위한 행사사업

1) 과 및 소모임단위의 기금마련 행사에 관한 활동과 내용에 대해 지침서를 마련하여 여학생회가 지도해낸다.

(예로 대동제 기금행사에 참여, 과나 소모임단위에서 자체적인 일일찾집시도 등)

2) 단여, 총여에서 대동제, 대동한마당 등의 행사속에서 바자회, 물품판매, 주점 등과 기타 모금활동을 전개해낸다.

5. 자원봉사자들을 자원활동가로

자봉들의 탁아소 현장활동은 일상적인 활동시간의 불규칙성 및 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가장 큰 취약점으로 탁아소에서 자봉들을 믿을 수가 없게되고 이는 탁아소의 일주체로써 나아가 탁아운동의 주체로써 설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난관이다.

하지만 '왜 자봉들의 활동이 이렇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부터 파고 들면 우리는 해당 자봉들만의 한계로 이런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

총여탁아부장, 단여 탁아주체, 소모임주체, 탁아소자봉들을 통한 광범위한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봉들의 고민과 탁아소활동을 통해 높아지고 있는 탁아인식을 위의 주체들은 대부분 현장활동을 하지 않기에 제대로 담보할 수 없는 점, 탁아소에서는 상호간의 다른 준거집단속에 모이는 자봉들을 확일적으로 엮어낼 수 없다는 어려운 점등이 자원봉사의 한계를 조장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합시다.

- 1) 여학생회 체계속에서 탁아소모임 주체들은 반드시 현장활동을 일정 정도 경험하거나 자원봉사 유경험자가 주체로 설수 있도록 탁아교양을 지속적으로 합시다.
- 2) 1)의 교양을 기반으로 자봉에 대한 여학생회의 정책을 마련하고 자봉에 대한 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3)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탁아인식의 향상 및 자봉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4) 상호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정기모임 및 단합 모꼬지를 가집시다.
- 5) 현장자봉활동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탁아문제 연구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 6) 탁아소 현장활동을 하기전에 일정정도 교육기간을 두어 선별된 자봉들을 탁아소에 보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여학생회자봉들은 어디에서도 믿을만하다는 인식의 기반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이 확대 및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물들을 발표하고 「지탁연」의 대정부투쟁에 우리의 역할을 찾는다면 단순한 자봉이 아닌 자원활동가로써 성숙할 수 있다.

6. 사회진출의 모범을 만들어 갑시다.

지역탁아운동을 살펴보았을때 탁아운동을 책임지고자하는 주체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탁아운동침체의 매우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탁아소를 통해 여성문제나 지역문제, 노동문제의 다양한 접근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상황의 탁아교사들의 여건만 보고 또한 아동보육을 한다는 특정역할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느낀다.

여건만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탁아소 공간을 활용해 성폭력 상담소를 차린다던가 하는 활동은 탁아소가 지역주민들과 밀착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진출을 하는 여학우들이 빈민아동보육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탁아소를 보지말고 다양한 장을 펼칠수 있는 고민으로 탁아소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학우들이 탁아소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장을 만들수 있도록 우리는 탁아소 강화에 복무할것이다. 또한 활동이 담보가 되는 탁아소 건설을 통해 후배들의 탁아교사 진출도 지속적으로 실현될수 있을 것이고 대경지역에서 배출한 활동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후배들이 이런 전망을 잡더라도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것인지, 후배들의 올바른 사회진출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 이끌수 있는 선배활동가들의 모임이 조직적으로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고 선배 활동가들의 활동에 기반이 되어줄 후배들의 학내에서 활동내용도 책임성이 부재하다.

이에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이 모색되는 여학생회 활동가들의 동문회를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끼며 우선 여학생회 연결된 장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의 내용들은 선배가 같이 생산해내어 사회진출의 모범인 여학생회 일꾼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다.

여연운영을 위하여

1. 들어가며

‘대구에는 봄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봄이 왔다 느낄때쯤이면 벌써 더위에 숨을 몰아쉬는 그런 4월인것 같습니다.

대동학교다 신입생활영화다 해서 3월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보냈을 우리 여연교사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신입생들을 맞이하느라 무척이나 힘드셨죠? 어때요? 교사님의 생각처럼 새내기들은 많이 모집이 되었나요?

본격적인 여연운영을 시작하는 4월이기에 다시 한번 힘찬 각오로 시작합시다.

2.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88년 경대내에 여성문제 연구모임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경대내에는 30여개의 여연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연건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게다가 있더라도 스터디 몇번 해보지도 못하고 일년을 보낸 여연들도 많구요.

학기초엔 힘차게 발돋움을 하였다가 2학기가 되서는 느슨해지고, 결국은 해체되어 버리고 다음해에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우리 여연의 모습,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한 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 주체의 문제

보통 과에서 2학년들이 여연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연짱들의 대다수가 2학년들이죠. 여연짱들은 교사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여학생회장이 여연짱과 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보통 과에서 여연구성원이 10명이라고 할 때 여연짱은 모임약속 한 번 잡기 위해서 10사람의 시간을 맞추어야 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하나하나 챙겨나가기도 무척 힘이 듭니다. 거기에다 학습준비까지 떠맡는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여연짱이 무슨 수퍼우먼이라도 되는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연장과 교사는 분리해야 합니다. 여연장은 전반적인 여연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여연구성원들을 챙기도록 합니다. 교사는 되도록이면 고편 선배들이 담당해서 맡고, 여연장과 의논해서 커리를 잡고 학습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간중간 구성원들의 학습정도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두을 고편 선배의 부재

여연구성인원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1학년과 조금의 2학년, 그리고 1-2명 정도의 3학년들입니다. 눈 씻고 뒤져봐도 4학년 선배들을 찾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다른 학회, 소모임에 비해 여연은 너무나 고편 선배들이 없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첫째로 꼽는다면 여연인들의 안일한 자세 때문이 아닐까요?

고학번 선배들이 남아 있지 않는한 여연은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자꾸만 뒷걸음질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부터 다짐합니다. 고편 선배가 없다고 투덜댔던 우리들이 고편 선배가 되었을 때는 또다시 후배가 그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엿 여연인들의 안일한 태도

다른 어떤점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연인들이 여연을 대하는 태도가 그저그래서는 아무리 교사가 뛰고 고편 선배가 날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여연들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여연을 해야하고, 들어온 지에 대해 정말 여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네엿 커리의 문제

교사들 경우 일년내내 입에 달고 있는 소리가 “다음 번엔 뭘하지”입니다. 그리고 고편 선배들은 1학년때 했던 공부를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학이라는 분야자체가 역사가 오래되지 못해서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고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학습내용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또한 다른 커리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총여학생회 여연부에서는 커리문제를 해결코자 연구단위가 생겨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구단위는 여성학 자료 정리, 분석을 통해 커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좀 늦게 생겨서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모자란 것은 앞으로 하면서 채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과 재학생 학습은 분리합니다. 지금까지 여연의 학습내용은 너무나 1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고학번 선배들은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단지 의무감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신입생은 신입생 내용에 맞게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공부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재학생과 신입생이 함께 하는 공동세미나를 가집시다. 너무 분리해서 공부하면 서로가 떨어지기 쉽겠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날은 꼭 뒷풀이를...

3. 앞으로는 이렇게...

(1) 여연장과 교사는

1) 학습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해 줄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현상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예를 들어, 한계레 신문, 여성 신문을 매일매일 읽고 이야기해준다거나 서점에 자주 들러 새로운 내용들을 빨리 접한다든가 하는 등등)과와 교내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성원들에게도 활동성을 고양시켜 줄수 있어야 합니다.

2) 자신의 의견과 반대될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풍부한 내용으로 이끌어 내도록 합니다.

3) 토론할 때 절대로 주도권을 잡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4) 모든 운영에 있어 모두가 주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총무, 서기, 편집부원...)

(2) 여연 구성원들은

1) 공부한 내용들을 생활속의 작은부분에서부터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음담패설 안하기, 스포츠 신문 안보기...)

2) 학습 준비에 임함에 있어 책에다 줄긋는 것에서 벗어나 리포트 작성을 합니다.

단 몇줄이라도 정리해서 오는 습관, 이런 것이 모인다면 나중에는 훌륭한 자료가 되겠지요?

3) 그 날 공부하고 토론한 것을 기록해 둡시다.

4) 학습한 내용을 항상 공개자보화하고 그외의 여성문제에 관해 학우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식지, 자보, 신문등을 내도록 합시다.

(3) 여연 운영에 있어서는

1) 어떤 모임이든지 구성원들의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모임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학습후에는 꼭 뒷풀이를 합시다.

잔디밭에서 과자를 함께 먹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돈과 시간이 된다면 밥이나 술도 한잔...

2) 규칙을 정합시다.

모든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하고 어겼을 경우 가벼운 벌칙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 지각 - 500원 --> 책을 사거나 이후 소식지발간에 보태도록

3) 딱딱한 강의실에서만이 아닌 자연에서 공부를

야유회나 모꼬지를 통한 여연인들의 살부비기 어때요? 정도 쌓이겠지요?

4) 생일을 꼭 챙기자

서로의 생일을 꼭 기억하고 챙겨주며 꽃 한송이, 편지한통이라도 주고 받아 서로의 정을 확인합시다.

4. 긴급진단 - 새내기가 모이지 않는다.

보통때면 3월이면 새내기모집이 끝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새내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각과마다 난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은 이 난국을 극복하고 힘차게 새내기들을 꼬시도록 합시다.

1) 다시 한번 공개자보화

솔직하고 눈물어린 호소와 함께 생활적인 면이나 여성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낸다. 또는 구체적인 여연활동을 적는것도 괜찮겠죠?

2) 여연인들 1새내기 꼬시기 작전

새내기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1명당 1사람의 새내기를 만나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먹이면서 여성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3) 편지, 카드작전

정성어린 편지나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 한송이라도..

4)대남학우작전

여연이 여학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좀더 남학우들에게 관심을..

5. 마치면서

이렇게 늦게서야 운영지침서와 커리지침서가 나오게 된 것을 무척이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발로 뛰는 여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여 여연부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비판도 해주세요.

=749대 실천의 어계동무 자주총여학생회
어연사랑 여연부에서 드립니다=

여성문제의 과학적인식을 위하여

누구나 한번쯤은 “여자라는 이유로 꼭 이렇게 되어야 하나?”하는 의문과 함께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적조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성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을 눈에 잘 띄지도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모습은 나와는 너무 다르게 느껴져 그냥 자포자기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우리 여학생들의 일반적모습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적극적인 여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탁월함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기도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수천년간 쌓이고 굳어온 여성 억압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커리큘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조사 연구하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인식을 높이고 여성을 포함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역사의 큰 길로 나아가는데 이 커리큘럼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여성문제의 인식(여성문제란?)

● 목적 - 기존의 왜곡된 여성관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자신이 살아 오면서 느꼈던 여성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게 한다. (남학우들의 여성관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왜곡된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

☞ 토론거리

1)우리가 자라오면서 느낀 여성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평소에 느껴왔던 여성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2)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의존성, 소극성들을 구체적생활모습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이것은 과연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것일까요?)

3)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고도서

엄탈이 울면 제1장 우리들의 모습 <동녘>

한국의 여성과 남성 제1장 서론 <문학과 지성사>

여성학 강의 제1장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 <동녘>

살의 여성학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의 문화>
(입문서)

땀땀기를 벗고서3<동녘>, 내가 만난 여자 그리고 남자 <그린비>
시도 때도 없이 울어야 하는 암탉<여성사>, 오늘 썸바귀꽃으로 살아
<들불>

새내기 여성학<여성사>,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백산>

2. 성차와 성역할

● 목적 - ‘여성답다’, ‘남성답다’ 라는 성차는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
성차에 관한 논쟁들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성역할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한다.

☞ 토론거리

- 1) ‘여성다움’, ‘남성다움’ 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2) 성차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 3) 성차에 따른 성역할은 당연한 것일까요?

☞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1장 여성연구의 경향과 과제, 제3장 생물학적성
차와 불평등, 제4장 여성의 사회화 <사회문화연구소>

성의사회학 제 2, 3, 4장 <문음사>

여성사회학 제1장 남성주도사회학에 대한 여권론적비판과 앞으로의
방향 <경문사>

여성학 강의 제3장 성차와 성역할의 사회화 <동녘>

한국의 여성과 남성 제5장 ‘남성다움의 구성과 재구성’ <문학과 지성
사>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 길들여진다 <정우사>

살의 여성학 “여성과 남성은 얼마나 다른가”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은 따로 있는가” <또 하나의 문화>

3. 성차별의 근원

● 목적-여성들의 억압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문제가 왜
사회속에서 유지되고 묵인되는가를 알아본다.

☞ 토론거리

- 1) 각 시대마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 2) 이러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
엇인가?

☞ 참고도서

성의 사회학 제5장 성차별의 근원(!), 제6장 성차별의 근원(2) <문
음사>

여성학 강의 제1장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 <동녘>
 세계 여성사<백산서당>, 여자는 왜<동녘>
 여성2 “새로쓰는 여성의 역사”<창작사>, 정치 경제학 입문1<동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아침>, 한국여성연구3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의 변증법”

4. 여성과 가족

한국 가족내 여성의 지위를 사회구조 변동과 맥을 같이하는 가족의 구조, 역할의 변화 및 가족문제와 관련해서 알아본다.

(1)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관계

● 목적-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변화들을 알아본다.

● 토론거리

1) 가정내에서 여서의 지위 향상에 대해 얘기해 보자

2) 우리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 참고도서

성의 사회학 제15장 여성과 가정<문음사>, 여성학 강의 제15장 여성과 가족<동녘>

한국의 여성과 남성 제4장 가족관계<문학과 지성사>

여성의 한국사회 제5장 가족과 여성의 위치<사회문화연구소>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 아카데미>, 한국 가족론<파치>

가족관계와 의사소통<파치>,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파치>

살의 여성학 “젖은 낙엽 증후군에 대한 걱정” “무책이 상책인가?” <또 하나의 문화>

암탉이 울면 “가정에서 여서의 지위는” <동녘>

여성 사회학 제4장 가족과 가구<경문사>

(2) 가사노동

뒷부분에 있음

(3) 결혼

결혼과 가족<이화여대 출판부>,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한울 아카데미>

결혼과 사회<성신여대 출판부>, 혼수전쟁<청산>

(4) 이혼

● 목적-현재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혼’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한다

● 토론거리

!) 현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이혼이 아닌 다른 선택은 없을까요?

(6) 참고도서

이혼, 또 하나의 선택<여성사>,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소설)

(5)가부장제

*목적-인류사회를 조직화하는데 있어 하나의 주요한 근간이 되어온 가부장적 구조 원리가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왔으며, 어떻게 여성을 통제하는 제수단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토론거리

1)가부장제란 어떤 것인지 정의해보고, 우리 실생활에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해보도록 하자

2)가부장제의 역사를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해보자

*참고도서

한국의 여성과 남성 제2장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문학과 지성사>

여성과 한국사회 제 2장 한국 여성의 과거와 현재<사회문화연구소>

성의 사회학 제1장 남성지배와 이데올로기<문음사>

5. 여성과 법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여성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엄연한 사회구성원인 이상 법의 규정력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법에 대해 무관심할 수도 없다.

(!)가족법 - 호주제, 친족범의, 친권제, 동성동본불혼제...

*목적 -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가부장제' 국가에서는 여성의 이해가 법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법제상에 나타난 남녀불평등요소를 알아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1)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제도에서 차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제를 고집하고 있는데 '호주제는 과연 필요한가요?

3)동성동본불혼제에 관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12장 여성과 법 <사회문화연구소>

가족법개정운동과 방향 <석순4호>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성의 사회학 제11장 여성과 법 <문음사>

여성학강의 제8장 법과 여성현실 <동녘>,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여성평우회>

살의 여성학“법은 모를수록 좋은가?”〈또 하나의 문화〉, 가족 정책과 법〈한울림〉

(2)노동법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목적 - 여성의 취업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은 여전히 작업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취업의 문을 뚫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조항에서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1)여성들을 일자리가 남아 둘 때에만 취직시키겠다는 고용관행을 깨는 방법은 무엇인가?

2)취업준비를 함에 있어서 여대생들이 제일 1차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12장 여성과 법 〈사회문화 연구소〉

성의 사회학 제11장 여성과 법 〈문음사〉

여성학 강의 제8장 법과 여성현실〈동녘〉

(3)성관련법 - 모자보건법, 간통을 금지하는 형법, 윤락행위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목적 - 여성의 성생활은 출산을 위한 성관계와 성적쾌락과 인간적만족을 위한 성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거리

1)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

2)성폭력특별법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도서

여성학 강의 제8장 〈동녘〉, 성의 사회학 제11장〈문음사〉

“윤락행위등 방지법개정을 위한 연구” 〈여성연구 8-1〉

“간통죄폐지는 아직 이르다” 〈테백 6월호〉

“현행 성폭력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추진 특별위원회〉

(4)여성범죄, 그리고 일탈

*토론거리

1)남성범죄와 여성범죄가 양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2)남성범죄와 여성범죄가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참고도서

여성사회학 제7장 여성, 범죄, 그리고 일탈 〈경문사〉

한국여성연구3 “성폭력 실태와 법적 통제”

6. 여성과 문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속에서 왜곡되어지는 여성문화현실을 알아보고

여성이 자신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여성문화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여성과 문학

*목적- '페미니즘'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문학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작품들을 대하여야 하며 이 작품속에 나타나는 여성관, 남성관, 여성해방론적관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1) 가장 인상깊었던 문학작품속의 여성상과 감동적인 남녀관계를 이야기해보고 여성해방적관점에서 토론해 보자

2) 흔히 페미니즘작가라고 일컬어지는 박완서, 이경자, 공지영의 작품을 비교 토론해보자

*참고도서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성의 사회학 제8장 여성과 문학<문음사>

여성학 강의 제9장 여성해방문학<동녘>

정의 사슬 풀고 자기언어 가지기 <문학사상 1990, 2월호>

또하나의 문화 3호 "페미니즘 문학" <평민사> "한국 페미니즘문학 어디까지 왔나"

여성 1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창작과비평사>

여성 3 "여성문학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항일 혁명문학의 전통과 일어서는 여성의 형상" <창작과 비평사>

여성해방문학에서 본 80년대 문학 <창작과 비평사>

여성운동과 문학1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해방을 위한 몸부림과 그 한계 <정현 8호>

여성운동과 문학<공동체>,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문학과 여성" <우리교육>

살의 여성학 제3부 문학속의 성과 권력<또 하나의 문화>

(2) 여성과 종교

*목적- 여성을 가부장적인 제도에 예속시키는데는 종교가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구체적으로 종교에서 여성을 어떻게 소외시켜왔는지를 알아본다

*토론거리

1) 각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 얘기해 보자.

2) 서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일환으로 많은 여성의 지위확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알고 있으면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도서

심리여성학 "우리속에 있는 여신들" <또 하나의 문화>

성의 사회학 제7장 여성과 종교<문음사>

(3) 여성과 대중매체 - 영화, 연극, 광고, 잡지, TV

*목적-대중매체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대중매체속에 나타나는 왜곡된 여성상, 여성관을 알아보고 올바른 지향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 1) 최근 인기있는 TV프로그램에서 성차별적편견들을 지적해보자.
- 2) 대중매체에서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성상품화'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자.
- 3)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자.

*참고도서

영화로 읽는 여성의 삶<서울 ymca>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대중매체속의 여성"<우리교육>

살의 여성학"대중매체는 여성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가?" "여성의 관점에서 본 대중가요"<또 하나의 문화>

여성 1 "여성의 의식을 오도하는 대중매체" <창작과 비평사>

석순 3호 "여성문화론"

무엇이 여성해방인가 "여성과 데스크" <백산>

정정헌 8호 "대중매체가 오도하는 여성의 모습" "대학문화 주체로서의 여대생"

석순 6호 올바른 여성언론자를 위한 시론

(4) 문화

*목적-남성문화와 여성문화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인류문화로의 모색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거리

- 1) 인간생활에서 문화는 왜 필요한가?
- 2) 남성과 여성이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갖는 이유는?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11장 여성과 문화<사회문화연구소>

지배문화, 남성문화 또 하나의 문화제4호

7. 여성과 노동

노동과정에서 보여지는 여성 불평등현실과 특히 자본주의와 여성노동과의 관계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찾아낸다.

각 계층별 여성의 존재상황, 억압상태를 살펴보면서 그들내의 차별성과 공통점을 찾아보고 이속에서 여성운동의 진정한 주체를 설정하여 여성문제해결에 광범위한 참여를 모색한다.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6장 계급별 가족과 여성<사회문화연구소>

여성사회학 제2장 여성과 계층, 제6장 여성의 노동<경문사>

한국여성연구3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와 여성노동의 실태”“여성노동과 성적통제”〈동녘〉

(1)취업

***목적-**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취업현실과 여성취업의 변화와 특성, 그리고 여성차별적요소를 알아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 1)여성의 취업과 여성의 지위향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 2)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취업률의 관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8장 여성과 노동시장 <사회문화 연구소>
여성사회학 제6장 여성의 노동 <경문사>, 성의 사회학 제13장 여성과 취업<문음사>**

(2)탁아, 육아

***목적-**여성의 노동현실을 이야기 할때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가장 어려운점은 육아, 탁아의 문제이다. 탁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후 전망을 가진다.

***토론거리**

- 1)육아라는 부분에서 부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자
- 2)‘탁아’라는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성에 대해 얘기해보자
- 3)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참고도서**

여성2 “도시빈민 지역 탁아소 운영의 현실과 전망”“탁아소가 필요하다”<창작과 비평사>, 반쪽이의 육아이야기<미학사>, 여성취업과 탁아운동<등예>

살의 여성학“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또하나의 문화>

엄딸이 울면“협동정신을 길러주는 탁아소”<동녘>

(3)가사노동

***목적 -**가사노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 1)옛날에 비해 현대여성들은 가사노동에서 많이 편해졌을까?
- 2)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도서**

성의사회학 제14장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문음사>

또 하나의 문화 제6호 주부,그 딱힘과 트임 <또하나의 문화>

가사노동 <신광출판사>, 여성사회학 제6장 여성의 노동<경문사>

여성과 한국사회 제7장 가사노동<사회문화연구소>

**가사노동의 사회학 <신광출판사>, 한국여성연구3 “신고전 경제학에
서 본 가사노동과 가내 성별 분업”**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살의 여성학 “주부는 노는 사람인가?” “이 시대 주부는 할만한 직업
인가?” <또 하나의 문화>**

(4) 사무직 여성

***목적-현대 교육의 보급률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지 않는 이유와,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1) 대졸 여성의 취업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해마다 취업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의 입장, 여성의 입장, 그리고 사회구조적 측
면에서 생각해보자**

**2) 생산직 여성과 사무직 여성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위치의 공통점과 차
이점은 무엇인가?**

***참고도서**

사무직 여성<계간지>, 사무직 여성과 임금<민우회>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석탑>, 한국의 여성과 남성 제3장 여성과
직업<문학과 지성사>, 성의 사회학 제13장 여성과 취업<문음사>**

**살의 여성학 “능력만 있으면 여성도 일할수 있다?” “여성은 직업의식
이 약하다” <또 하나의 문화>**

(5) 여성노동자

***목적-여성노동자의 창출배경과 노동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주체적으로
극복한 여성노동자의 사례를 알아본다**

***토론거리**

1) 여성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기여도는 얼마일까요?

2) 여성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참고도서**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백산>, 여성노동자의 책<거름>

여성2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불꽃이며, 이 어둠을 밝혀라<백산>, 암탉이 울면 제3장 여성노동자가
되어 <동녘>**

8시간 노동을 위하여<풀빛>, 여성학강의 제6장 여성과노동<동녘>.

일하는 여성<한국여성노동자회>

(6) 여성농민

***목적-정부의 농업정책 허상과 성차별적 모순속에서의 여성농민의 현실
을 밝혀보자.**

1) 먼저 농촌의 어려움, 정부의 농업정책을 얘기해보자.

2) 여성농민이 노동에 참여하는 기여도를 알아보고 노동이 제대로 평가

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참고도서

여성농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조선여성88>

농촌여성현실과 여성농민운동<민중사>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오늘의 농촌여성”<창작과 비평사>

제3세계 여성노동 “주변부 농촌여성의 생계유지적 생산”<창작과 비평사>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민중사>

암탉이 울면 “마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여성농민들”<동녘>

여성학 강의 제7장 여성농민문제의 본질<동녘>

(7)도시빈민여성

*목적-여성농민과 더불어 가장 첨예하게 계층과 성적 억압을 받고있는 도시빈민여성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1)우리나라 현실에서 빈민층이 창출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도시빈민여성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의 경제적 기여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도서

도둑의 아내<소설>, 도시빈민론<아침>,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민중사>

빈민여성 빈민아동<아침>, 빈민여성사례집, 암탉이 울면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지요”<동녘>

8. 여성과 교육

*목적-교육은 남녀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한 동시에 사회의 제불평등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적 현상이기도 하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성차별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1)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이 겪는 성차별 사례들을 얘기해보자

2)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여성이 받게되는 교육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3)이것들을 극복할수 있는 올바른 여성교육은 어떤것인가?

*참고도서

여성사회학 제3장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경문사>

여성과 한국사회 제4장 여성의 사회학<사회문화연구소>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 또하나의 문화제5호

성의 사회학 제12장 여성과 교육<문음사>

여성1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성차별교육”<창작과 비평사>

학교 교육현장에 나타나는 성차별주의<또하나의 문화>

석순4호 “여성을 길러내는 교육현실”

여성의 자기선언“교육의 영향”“어떻게 여자가 되는가?”<고려연>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가정, 학교, 사회에서 길들여지는 여성들”
<우리교육>

9. 여성과 정치

*목적-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성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정치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편견,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극복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거리

- 1)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관심이나 참여도의 원인을 사회, 상황, 사회제도적요인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2)우리나라 여성문제와 연관시켜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여성정책은 무엇인가?
- 3)우리나라 여성정책중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13장 여성정책<사회문화연구소>

성의 사회학 제10장 여성과 정치 <문음사>

여성 사회학 제8장 여성과 정치 <경문사>, 가족-정책과 법<한울림>

10. 여성해방이론체계

*목적-기존의 여성해방이론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 맞는 과학적 여성해방운동을 정립해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 1)각 이론에 대두된 시대적 배경, 철학적 배경을 알아본다.
- 2)각 이론이 가지는 장, 단점을 알아보고 비판해 보도록 한다.
- 3)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해방이론체계는 과연 어떠한가?

*참고도서

여성사회학 제9장 여권론적 지식생산 <경문사>

성의 사회학 제20장 여성해방과 이데올로기<문음사>

여성연구3 “성에 관련한 여성해방론의 이해와 문제”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제2부 “대안적 여성해방이론 체계들”<풀빛>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풀빛>

여성 해방 사상의 흐름<백산>

여성해방론<동녘>, 사적유물론과 여성해방<중원문화>

(1)자유주의

성의 예측<이대 출판사>

(2)맑스주의

여성, 이중의 굴레<유월>

사적유물론과 여성해방 독두서평1“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의 재인식”

(3)급진주의

여성해방과 성의 혁명<일월서각>, 성의 변증법<백산서당>

(4)사회주의

여성해방논쟁<풀빛>

(5)여성운동의 방향정립

성의 사회학 제21장 가부장제 체제를 넘어서 <문음사>

여성1 “여성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여성2 “한국 여성 해방 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창작사>

사회과학 계론 “여성문제의 본질과 해결의 전망”<이화88>

여성과 한국사회 제15장 여성과 통일<사회문화연구소>

한국의 여성과 남성 제7장 가부장 체제를 넘어서 <문학과 지성사>

11. 한국 여성 운동사

*목적-한국 여성해방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수용하면서 한국사회 변혁운동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다.

*토론거리

1)한국 여성운동의 흐름을 얘기해봅시다

2)한국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알아본다.

3)한국 여성운동의 당면과제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참고도서

한국 여성운동사<일조각>, 여성학 “한국 근대 여성운동”<이대출판부>

일제하 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 “1920년대 항일 부녀 단체의 지도층 형성과 사상”<풀빛>, 한국여성사< 풀빛>

석순5호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한국 여성 단체의 현황과 평가”<고려대 석순 편집부>

한국 여성운동 소사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창작과 비평사>

한국 여성 운동의 현단계 “여성운동과 문학”<풀빛>, 한국 여성사 1,2,3

일제하 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 “1920년대 항일 부녀단체의 지도층 형성과 사상”<풀빛>, 여성과 한국사회 제14장 여성운동의 역사적 고찰 <사회문화연구소>

여성학 강의 제2장 한국사회구조와 여성문제, 제12장 한국 근대 여성운동사, 제13장 한국 현대 여성운동사 <동녘>

12. 세계여성운동사

*목적-외국의 여성해방운동을 학습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시야를 넓히고

타국의 승리경험을 실천적으로 수용하여 여성운동의 승리에 대한 필연성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

*토론거리

- 1) 여성해방운동과정에서 그 주체들의 움직임, 형성과정을 알아본다
- 2) 민족해방, 계급해방과 여성해방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보자

*참고도서

세계여성운동2<동녘>, 여성2 “변혁기의 여성운동”

클라라제트킨 선집<동녘>, 여성학 강의 제10장 세계의 여성운동<동녘>

성의 사회학 제19장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문음사>

(1)중국

중국 여성해방운동<사계절>, 하늘의 절반<동녘>

혁명기의 여성들 “중국 여성해방의 선구자들”<한울림>

새로 태어난 여성-창녀 계조사<한마당>

(2)프랑스

혁명기의 여성들 “프랑스 혁명의 십자매”<한울림>

(3)영국

영국 여성운동사<종로서적>

(4)소련

소비에트 여성은 말한다<알과 함>, 여성학 강의 제11장 사회주의와 여성현실<동녘>

(5)제 3세계

어머니들<한마당>, 산디노의 딸들<우리>

여성2 “필리핀의 여성-노동자 운동”<창작과 비평사>

제 3세계 여성노동<창작과 비평사>

13. 여성과 사회문제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10장 여성과 일탈<사회문화연구소>, 한국여성3 “성일탈과 여성”

(1)매매춘

*목적-매매춘의 발생원인과 실태를 알아보고 매매춘을 극복할수 있는 제도적, 의식적 개혁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토론거리

1)매매춘은 진정 ‘필요악’인가?

2)매춘여성을 바라볼때 자신이 가지는 느낌은?

*참고도서

성의 사회학 제16장 여성과 사회문제 <문음사>, 매춘<동광출판사>

사랑의 품앗이 그 왜곡된 성<등에>, 매춘의 역사<까치>

암탉이 울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동녘〉, 수레를 미는 여성들〈공동체〉

무엇이 여성해방이론인가? “나는 왜 기생관광을 반대하나”〈백산서당〉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춘, 또다른 성의 상품화”〈시대평론〉

새로 태어난 여성-중국 창녀 계조사〈한마당〉

(소설)매춘열도〈등애〉, 은마는 오지 않는다, 고씨1,2

절반의 실제 “미역과 하나님”

(2)정신대

*목적-민족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여성의 성적침탈 수난에 대해 알아본다.

*토론거리

1)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정신대’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도서

정신대〈일월서각〉그 외 자료가 여학생회에 많이 있다.

(3)미혼모

*목적-날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미혼모’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 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1)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얘기해보자.

2)왜 미혼부는 없을까? 임신, 출산은 여자 혼자만의 책임인가?

(4)컴플렉스

*목적-컴플렉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에서는 남녀별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토론거리

1)자신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진단해보자.

2)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도서

신데렐라 컴플렉스 〈나라원〉, 착한 여자 컴플렉스

일곱가지 여성 컴플렉스 〈현암사〉, 남성연구 〈나라사랑〉

(5)여성과 보건

여성사회학 제5장 여성, 건강, 그리고 보건관리 〈경문사〉

성의 사회학 제17장 여성과 정신질환〈문음사〉

(6)여성과 폭력-아내구타

*목적-우리나라에서의 매맞는 아내에 대한 실상을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토론거리

- 1) 왜 아내들이 맞을까요? 이유가 있을 때는 구타가 정당할까요?
- 2) 가정내 폭력을 근절시킬수 있는 방안은?
- 3) '양애리' 사건을 얘기해봅시다.

*참고도서

성의 사회학 제18장 여성과 폭력 <문음사>

14. 성

(1) 낙태

*목적-함께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의 책임은 언제나 여성만이 지어왔다. 낙태는 남녀모두가 책임져야할 몫임을 각인하고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토론거리

1) 본인이 생각하기에 낙태를 합법화 해야 하나? 아니면 좀더 강하게 불법으로 막아야 되는가?

2)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얘기해보자

- 단대 여학생회나 총여학생회에 자료가 많아요

(2) 성교육

*목적-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제대로 피임법 하나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몸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가 되기 위해 올바른 성교육을 알아본다.

*토론거리

1) 자신이 알고 있는 피임법에 대해 얘기해보자

2) 잘못 알고 있었던 성지식에 대해 얘기해보자

*참고도서

돌려보는 일기장, 18cm 여행 상하 <희성>

- 그 외에 많은 자료가 있어요

(3) 성의식

*목적-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부과되는 이중적 성규범의 한계를 극복해내도록 한다

*토론거리

1) 혼전성관계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2) '이중적 성규범'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참고도서

여성과 한국사회 제9장 사랑과 성규범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비뚤어진 성을 바로잡는 길은" <우리교육>

살의 여성학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인가" <또하나의 문화>

여성학 강의 제5장 성과 사랑 <동녘>

새로쓰는 성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제8호

여성연구3 "현대 서양 철학에서의 성", 세계 성풍속 산책 <신세대>

(4)연애

*목적-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나갈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연애관을 알아본다

*토론거리

1)자신의 연애관을 이야기해보자

2)주위에 있는 '연애유형'들을 보고 나름대로 장, 단점을 얘기해보자

*참고도서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건강한 사랑을 가꾸는 길은" <우리교육>

살의 여성학 "사랑은 여성의 본능인가" "사랑과 성, 제자리는 어디일

까?" <또하나의 문화>, 암탉이 울면 제4장 이기심을 떨칠때 비로소 사

랑이 <동녘>

새로쓰는 사랑이야기 또하나의 문화제7호

15. 북한여성

*목적-남, 북한의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여성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토론거리

1)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2)기존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얘기해보자

3)남, 북한 여성정책을 비교해보자

*참고도서

또 하나의 조국-루이제 린저, 북한여성<실천>

북한의 여성정책<한울>, 북한여성"여성"<을유문화>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서울신문사>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 대구여성회

90년대에 들어와 여성운동은 다양해진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내용과 조직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80년대의 활동가 중심의 활동이나 사건 대응적인 방식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기존의 틀이나 방식으로서는 다양한 여성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도 없다. 사회의 변화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사업과제를 발굴해내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의 제시와 이의 관철을 위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80년대의 한국여성운동은 주로 각계 각층 여성들의 생존권 확보 투쟁과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등 법개선투쟁과 환경, 교육, 인권, 통일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 결과 여성운동이 여가선용적 취미생활이라는 선입관을 불식시켰고, 또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에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세력인가를 깨닫게 하기도 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의 여성운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주도권을 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연은 전국 23개의 여성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진보적 여성단체의 구심이다. 현재 여성운동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와 여연으로 대별되는데 여협은 흔히 관주도의 여성단체이며 막대한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여연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확대

지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여성단체의 결의를 통해서 여성후보를 배출했다거나 혹은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지원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이나 여성후보의 배출 또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했지만 역량이나 사회적 조건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여연은 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94년을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여성의석 20%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의 전개 또 자질있고 민주적인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 정치지도자를 교육양성하고 각종 모금활동 전개와 후보의 지원을 위한 지역지도력 네트워크 형성을 사업내용으로 잡고 있다.

대구여성회에서도 지자체와 관련한 설문조사, 공청회, 후보자 물색 등의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매우 중요한 토대이고 이번 선거법 개정이후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는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2. 지역운동의 전개가 요구된다.

여성운동이 보다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또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질 토대가 튼튼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로는 기존의 중앙 조직 중심의 운동차원이 아니라 보다 지역적인 조직의 건설과 지역주민을 토대로 한 활동들 즉 지역주민운동, 생활운동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여연은 여성의 조직기반확대와 지평을 넓히기 위해 광범위한 주부층을 조직화하고 이를 위한 과제별 사업내용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역운동의 중심은 역시 주부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생활협동조합이나 이를 근거로 하는 지회의 결성, 광명시의 시민운동연합, 살기좋은 구로지역만들기 여성회 등은 지역운동의 좋은 사례들이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비판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들도 생겨났는데 부천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 연대회의 의정지기단', 한국여성민우회의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대구여성회의 '주민자치 여성지기단'이 그것이다.

특히 부천의 경우 청소년에 유해한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어낸 중요한 사례이고 이는 또 전국적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대구여성회도 지난 93년 '주민자치 여성지기단'을 발족하였고 최근에는 쓰리게 분리수거와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활동을 위한 주민의 자치모임들은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므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다.

3. 정신대 문제의 대책활동과 평화통일운동의 전개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적극적인 연대를 해나간다.

통일운동에 대한 여성운동 지도력의 인식수준 고양과 지도력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통일을 대비한 여성운동계 내용적 대응력강화, 군축과 평화의 정착을 위한 역량확보와 방위비 삭감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4. 여연내 지방단체의 활성화방안 강구하여야

현재 여연에 참가하고 있는 지방단체는 모두 11개 단체이다. 그러나 재정압박이나 지도력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심한경우 아예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이는 지도층이 얇고 실무자의 재생산이 어려운 조건속에서 재정문제 까지 겹쳐 대중조직의 근간인 회원들의 확대는 커녕 관리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모든 문제를 타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 지역 여성운동의 전개방식에 대한 반성 및 내부의 자기혁신, 지역주민과 결합된 운동방식과 내용이 요구되며 또한 중요한 것은 지방단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조직의 지원도 필요하겠다.

대구 경북지역의 여성단체 소개 ☺

경북 여성 농민회

경북 여성 농민회는 지난 90년 초, 그 간의 경북지역 여성농민운동의 성과를 모아 창립되었습니다. 여성농민의 권익 실현과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한 몫을 하고자 농사일, 집안일로 바쁜 중에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주로 의성, 청송, 안동, 상주, 성주, 고령, 경산에 회원이 있고, 마을 면, 군 단위의 여성농민 모임이나 개인으로도 가입됩니다. 93년도에는 '쌀전량 수매와 학교급식 완전실현서명운동'과 쌀개방반대 싸움에서 탁아소 마련이나 무공해 비누판매등의 사업까지 벌여왔습니다.

현재 회장은 청송의 이보영씨이며, 노숙영씨(상주)와 이병술씨(고령)가 맡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 애린회

여성의 전화 애린회는 우리의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갖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해 일하는 곳으로써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1989년 상담실을 개소한 이래로 연2회 정기교육을 통해 상담자원 봉사자를 배출시켜 전화및 면접상담을 받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 구타당한 여성과 강간당한 여성을 위한 비상 휴식처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여성들을 위한 무료공개강연회를 매달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 동아쇼핑 아트홀에서 열고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742-1331, 1338에서 받고 있으며, 사무전화는 742-1332로 하시면 됩니다.

대구여성회

성차별 없는 민주사회의 건설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당당히 출발을 선언하였던 대구여성회가 창립된 지도 7년을 접어들고 있다.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 1988년 1월, 지역에서도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한 30여명의 회원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보수성이 짙은 대구에서 어렵게 출발하였다. 창립

초기에는 대중단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활동가 중심의 단체로서 각종 조사 구사업, 연대 지원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일반인이 참가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비판과 여성운동의 대중성 확보라는 자기반성이 일면서 1989년도부터는 일반회원이 참가하는 소모임체제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6개의 소모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여성회는 그동안 여성문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성학교, 각종 토론회, 강연회 등의 교육활동과 여성문화 한마당, 교육용 비디오 대여, 여성영화제 등의 문화활동, 지역내 다양한 여성문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그리고 격월간행 회지 '대구여성', 자료집 발간 등의 홍보사업, 성폭력 문제, 직장내 성차별 문제의 상담사업, 타단체와의 연대활동 등을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학교는 년 2회 실시되는 일반교육강좌인데 여성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정하여 9기까지 개최하였으나 작년부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어린이 대상 교육사업으로 '환경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연구 사업으로는 대구시민 성의식 실태조사, 대구지역 사무직여성 실태조사, 사업장 조사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민 정치의식 실태 조사를 꼽을 수 있으며 이것은 여성회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상담사업으로는 영남대 여직원 조기 정년 철폐투쟁 지원, 경북 산업대 결혼 철폐투쟁 지원, 안동 변월수씨 사건 지원, 강정순씨 사건 등이 주요 활동인데 특히 강정순씨 사건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화 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

본회는 1990년부터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한해 동안 집중 선전, 여론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 쟁취, 모성보호, 그리고 성폭력 추방 등을 사회문제화 시켜왔다.

중점사업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에서 한해의 사업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23개 회원단체의 대의원이 참가한 총회에서 결정되어 전국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사업으로 특히 작년에는 92년에 이어 성폭력 추방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여연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에 참가하여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 및 여론화 작업을 전개하여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성폭

력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지역에서는 여대협을 포함, 8개의 여성단체가 참가하는 성폭력 대책 대구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여론화 작업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자체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점사업으로 두면서 다가오는 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대비하는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회는 정회원, 후원회원, 회지회원 등의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정회원은 신입회원교육을 받고 원하는 소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석과 회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월 1만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내게 되며 회지회원은 년 1만원이상의 회비로 회지와 각종 행사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본회는 3개의 직장여성모임과 2개의 주부모임과 주민자치 여성지기단 등의 소모임이 있어 회원들이 각자의 조건과 적성에 맞게 각 소모임에 가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문제 연구반인 「이땅의 딸로 태어나」와 놀이문화 연구반인 「신명내고야 말리」와 전 회원이 주부로 구성된 「올바른 소비활동을 위한 주부모임」의 환경과 소비문제에 관한 활동, 방송 모니터를 통해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주부 모임인 「건강한 방송만들기 주부모임」은 그간 여성회활동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자기활동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고 있는 주요한 공간이다.

그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정참여공간인 「주민자치 여성지기단」이 있으며, 노래문화의 공간으로 직장여성중심의 모임이 현재 준비중에 있다.

지역 사회 탁아소 연합회 대구지역 위원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의 취업과 그로 인한 방치 아동들을 보호 교육하기 위하여 각 빈민지역 공단지역에 탁아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탁아소들은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뛰어드는 기층 기혼 여성들과 희망과 의욕에 찬 선생님들이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맞벌이 부부와 아동들의 문제 각 가정의 개별적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라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탁아소들이 전국에 8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탁아소들이 좀더 활발하고 내용성있는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 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는 개별 탁아소를 회원으로 하며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개별탁아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와 일하는 기층 여성들의 주체적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위원회’는 1988년 3월 지역내 민간 비영리 탁아소들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1988년 12월 ‘대구 탁아 교사회’를 시작으로 1990년 10월 ‘대구 지역 탁아소 준비위’를 결성하였으며 1994년 2월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 대구지역 위원회’로 조직력을 강화해내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아동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한 연구, 교육활동과 회보 발간 및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여름 캠프, 어머니 큰잔치등의 행사를 하고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각종 연대사업과 각 대학 총여학생회 탁아부와 연대하여 탁아사업의 활성화, 전교조, 여성회 및 지역의 타 단체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위원회는 배꼽마당 탁아소, 감나무골 탁아소로 2개의 탁아소가 어렵게 일하고 있으며 함께 일할 실무자와 자원 활동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딤 탁아소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당분간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땅의 모든 일하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주소 : 대구시 서구 평리동 1046 - 16번지 2층

전화 : 557 - 0419 (대구 지역 탁아소 연합)



